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林 玲 愛

(梨花女子大學校)

〈目 次〉

머릿말	II. 幡의 起源
I. 幡의 概念과 種類	III. 7~9세기 中國唐幡의 形成과 樣式的 特徵
1. 幡의 概念	1. 唐幡의 形成過程
2. 幢·幢幡과의 關係	2. 唐幡의 樣式的 特徵
3. 幡의 構造와 種類	맺음말

머릿말

불교에서 사용되는 佛具 중에는 染織品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幡은 佛前에 내려뜨려 지거나, 法會가 진행될 때 幢竿에 매달아 뜰 가운데 세워지거나, 혹은 塔의 相輪部에 매달려 하늘 높은 곳에서 나부끼면서 織物이라는 素材의 특성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공중에 휘날리는 수많은 幡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여 佛敎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렇듯 幡은 織物로서의 효용에 기초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佛敎로 귀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幡은 軍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道場의 魔를 降伏시키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幡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敎團의 標識으로, 혹은 佛·菩薩의 威德을 나타내기 위한 莊嚴의 道具로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佛敎幡은 그 후 中央아시아를 거쳐 中國과 우리나라, 그리고 日本에 까지 전해지게 된다. 幡이 佛像, 經典과 함께 佛敎가 전해진 곳이라면 어느곳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은 佛像이나 佛畫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누구든지 손쉽게 만들어 功德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많은 衆生들에게 애호되며 널리 사용되어졌던 幡은 그 才質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유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 또한 全無한 상태였다. 그러나 1965年 敦煌 130窟의 內部와 122, 123窟의 前方에서 대량의 幡이 발견되면서부터 幡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지만 筆者가 살펴본 바로는 이에 관한 단순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직까지 幡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法隆寺幡 혹은 正倉院幡에 관한 단편적인 고찰이 日本染織史에 포함되어져 서술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 幡의 유품들이 남아있는 中國, 日本에서의 연구 실적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단 한점의 완전한 형태의 幡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연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幡을 거는데 쓰였던 幢竿 및 幢竿支柱의 數가

유난히 많다는 점과 日本의 叡福寺에 소장되어있는 新羅時代(추정)幡 斷片의 잔존확인을 계기로 幡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本 연구에서는 우선 幡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그 起源地인 印度에서부터 中央아시아, 中國에 이르기까지의 幡의 양식적인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幡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中國唐幡를 수용하여 제작된 韓國의 古代幡과 韓國幡의 전파에 의해 성립된 日本의 幡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기회를 빌어 게재키로 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I. 幡의 概念과 種類

1. 幡의 概念

幡은 산스크리트어 Pataka의 漢譯語이며, 波多迦로도 音寫된다. 이 幡은 모든 旌旗의 總稱으로서 蓋 또는 幢과 함께 佛, 菩薩에게 바치는 莊嚴供養으로 사용되어 왔다.¹⁾

幡은 원래 武人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武勳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웠던 깃발이지만, 이것이 불교에 유입되어져 불, 보살의 降魔의 威德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즉 幡은 殿内の 기둥이나 天蓋에 懸垂되거나, 法會가 있을때 뜰 가운데 세우거나 또는 탑의 相輪이나 風鐸에 매달아 하늘 높은 곳에서 나부끼게 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널리 알렸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불교로 귀의시켰던 것이다.

『阿含經』의 ‘波羅門이 인간에게 이기는 법을 깨달았을때 屋上에 幡을 세워 이를 사방에 告知하였다’라는 말에서 幡의 기능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²⁾ 또한 『維摩經』에서는 ‘외적을 물리쳤을때 勝幡을 달았지만, 道場의 魔를 항복시키는 것도 같은 형태로, 따라서 戰勝幡이라 함은 불교의 降魔의 표시이다.’³⁾라고 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매어단 勝幡처럼 魔鬼를 항복시킨 표시로 幡을 사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幡의 기능은 보다 확대되어 불교의 의식때 필수적인 장엄구로 등장한다. 『長阿含經』에 ‘佛舍利를 床위에 두고, 末羅童子로 하여금 床의 네모서리를 받들어 幡蓋를 높이 들게하고, 꽃을 뿌려 香을 태우며, 무리들은 伎樂을 하며 사리를 공양한다’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幡이 佛舍利供養의 의식행사에까지 등장하는 의식구였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여러 문헌사료에 언급된 幡에 관한 내용들로 미루어보면, 幡은 인도에서 원래 軍旗였던 것이 불교에 유입되어져 불교의 장엄구로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신앙적인 의식구로도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塚本善隆, 『望月佛教大辭典』卷5 世界聖典刊行會, 1936, p.4245.

2) 『阿含經』卷25.

3) 『維摩經』佛道品 第8 ‘…降伏四種魔 勝幡建道場…’.

4) 『長阿含經』第4 遊行經 ‘以佛舍利置於床上 使末羅童子床四角擎持幡蓋燒香散花伎樂供養’.

2. 幢·幢幡과의 關係

幢은 산스크리트어 dhvaja 혹은 ketu의 漢譯語로 이들은 각각 馱縛若, 計都로 音寫되며, 寶幢, 法幢, 天幢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旗의 일종으로, 旗에 각종의 絲帛을 부착하여 불·보살의 장엄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幡, 幢 그리고 幢幡에 관하여 이렇다할 구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或者는 幡과 幢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⁶⁾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⁷⁾

이처럼 幢과 幡은 일반적 호칭으로나 혹은 문헌상에 나타난 명칭에 있어서는 구별되지만, 사실상 幢·幡의 기원인 인도에서조차 원래의 의미와 각각의 형태상의 차이에 관하여 정확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자못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幢과 幡이 그 기원지인 인도에서는 형태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최소한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에서만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幡·幢은 모두 軍旗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作法 또한 받아들였음이 분명하나, 그 형태는 조금 달라 幡은 단순히 長方形의 깃발형태이며, 幢은 여기에 雜色의 실을 덧붙여 늘어 뜨린 것⁸⁾이라는 것이다.

이상, 幡·幢이 그 어원에서는 Pataka 그리고 Dhvaja, ketu 등으로 차이를 보이나, 옛날 인도에서는 幢도 幡도 심지어는 후술할 幢幡까지도 형태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旗竿에 걸었던 旗’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듯 깃발을 가리키던 말들이 幡의 경우는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채 전해졌으나 幢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旌旗에 속하는 것으로 布帛으로 만든것’이라고 정의되던 幢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와는 자못 다른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는 幢이라 하면 細長의 柱를 상기시키며, 그 柱에 像을 새긴것을 像幢이라 하며, 陀羅尼類를 새긴것은 經幢(陀羅尼幢)이라 칭한다.⁹⁾ 따라서 중국에서의 幢이라 하면 단지

5) 『望月佛教大辭典』 p.3841.

6) 幢, 幡의 관계에 있어서 幢과 幡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본 문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法華經』 第5分別功德品에는 ‘각각의 諸佛 앞에 寶幢이 있고, 勝幡을 걸었다’(『法華經』 第5分別 功德品 ‘一一諸佛前 寶幢懸勝幡亦以千萬偈...’)라고 하며, 또한 幢의 산스크리트어인 ketu는 太子시대의 釋尊이 친구와 함께 城外로 말을 타고 나갈 때의 묘사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일종의 旗印으로써의 幢이고, 이에 반해 幡은 길가에 길게 뻗은 旗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있다.

7) 『菩提心義』(下)에서는 ‘幡은 幢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菩提心義』 第10).

8) 『大日經疏』 卷9 ‘梵云 馱縛若 此纛爲幢 梵云 計都 此纛爲旗 其相稍異 幢但以種種雜色標幟莊嚴 計都相亦大同 而更加旒旗密號兵家 作衆龍鳥獸種種類形 以爲三軍節度 有處亦纛爲幢’(大正藏 第39卷, p.673).

9) 逸見梅榮(1963), 『印度佛教美術考』 建築篇, 考藝社, p.259.

竿(staff)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같이 梵語의 용례로는 동의어이나 그 변천과정을 통하여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게 된 것은 특히 주목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幢과 幢竿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10) 本稿에서는 이같은 혼동을 막기 위하여 幢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즉, 광의개념의 幢¹¹⁾은 본래 의미인 깃발로서의 幢 이외에, ‘竿’ 혹은 ‘幢竿支柱’를 모두 합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¹²⁾ 협의개념은 본래의미인 ‘竿에 부착시킨 旗’만을 일컫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筆者는 幢이란 개념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변한 것은 특히 중국에서 별개의 변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이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등지에 수용되어져 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幢’의 광의개념은 자칫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광의개념의 幢이 아닌 협의개념의 幢을 중심으로 幡 혹은 幢幡과의 관계를 서술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같은 전제아래 지금까지 살펴본 幢과 幢幡 및 이들과 幡과의 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幢과 幢幡은 ‘幢竿에 늘어뜨린 旗’를 뜻하며, 幡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며 그 밖에 탑위나 佛殿內的 기둥이나 天蓋에 매단것, 혹은 引路王菩薩의 持物로 이용된 것 등을 모두 포함한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 3개념 중 幡의 개념 속에 幢, 幢幡이 포함되며, 幢과 幢幡의 경우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幢이 幢幡을 포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간혹 ‘소위 幢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掛佛로 칭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되는 경우가 있는데¹³⁾ 幢과 掛佛은 엄격히 다른 것으로 구분해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회가 야외에서 진행될 경우 대개 그곳에는 본존불상을 봉안할 수 없으므로 본존대용으로 사용되는 불화를 말하는 것으

10) 松本文三郎은 幢의 본래의 의미가 ‘깃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幢竿은 石刻이 생략되었을 뿐 幢竿이 곧 幢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松本文三郎(1926), [朝鮮の幢に就いて], 『內藤博士還曆祝賀支那學論叢』, 弘文堂印刷部, pp.732~734).

11)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에서 본 幢의 最古 例는 아쇼카왕(阿育王) 石柱이다. 이 아쇼카왕석주는 일지기 慧超스님이 사르나트(塵野苑)의 아룩왕석주를 親見하고 ‘위에 獅子가 있는데 그 幢은 극히 화려하며… 탑을 만들때 幢도 함께 조성했다’(『往五天竺國傳』 ‘…上有師子 彼幢極麗…塔時 並造此幢…’)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幢으로 인식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인식은 『大唐西域記』의 저자 玄奘스님도 마찬가지였으며 근래의 학자들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逸見梅榮(1975), 『佛像の形式』, 東出版, pp.25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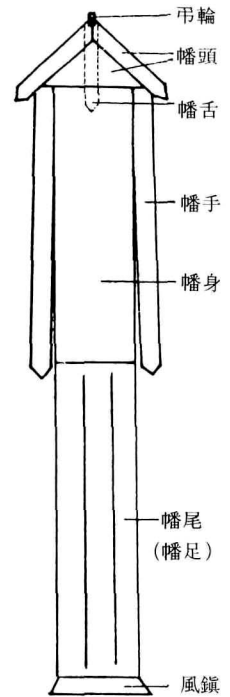
12) 逸見梅榮은 圖像集類 編者の 말에 의거하여 ‘幢은 幢頂部, 幢柱部, 幡의 三部로 구성되어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逸見梅榮(1975), 『佛像の形式』, 東出版, pp.250~251).

13) 葛城末治(1935), “朝鮮の幢及び幢竿に就いて”, 朝鮮總督府內務部, 『朝鮮金石考』 大阪屋號書店, p.684. 具善會는 佛畫중 크기가 큰것을 掛佛이라고하고, 이를 幢이라고 추정하고 있다(具善會(1980), “韓國 古代 伽藍建築의 幢竿支柱 및 掛佛臺에 關한 研究”, 嶺南大學校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p.7 注, p.16 참조); 松島 淳(1926), “珍しい朝鮮李朝時代の大懸幡”, 『考古學雜誌』, 16-1. 幢이란 본래 사찰의 門前에 꽂는 旗幟의 일종으로서 속칭 掛佛이라하여 그 표면에 불화가 그려져 있으며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 등 의식이 있을때만 幢竿에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文化財管理局(1969), 『文化財大觀 寶物篇』, p.265).

로 그 크기는 보통 수미터 내지 수십미터에 달하며 그 형태도 일반불화와 같은 方形이 보통이다. 뿐만아니라 幢은 幢竿에, 掛佛은 掛佛臺에 걸었기 때문에¹⁴⁾ 一說에 '掛佛을 幢竿에 매달았기 때문에 幢과 掛佛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 幡의 構造와 種類

불교의 장엄구로써 사용되어진 幡은 그 형태가 人間의 身體와 흡사하기 때문에 각 부분의 명칭을 인체와 마찬가지로 幡頭, 幡手, 幡身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가늘고 긴 幡身을 중심으로 幡身の 頂上에는 이등변삼각형의 幡頭를 얹어놓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2개의 幡手を 각 1개씩 늘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幡身の 하단에는 주로 2개 혹은 그 이상의 긴 幡尾(幡尾 혹은 幡脚)를 늘어뜨리고 있다. 그 끝에는 허공중에 매달았을 때 바람에 의해 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주로 나무로 만든 風鎖를 부착시키고 있다. 이 風鎖는 幡을 말아서 보관할 때에 卷軸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幡頭的 꼭대기 부분에는 弔輪과 연결되어 幡舌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筆者의 조사에 한한 한 몇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日本에서 제작된 幡의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挿圖 1) 一說에서는 이것이 三角의 智形, 三身の 坪, 定慧의 손 혹은 四波羅蜜의 발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¹⁵⁾



(挿圖 1) 幡의 構造

A) 文獻에 나타난 幡의 種類

문헌에 나타난 幡의 종류는 材料, 色, 크기, 用所, 用法, 形態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表 1 참조)¹⁶⁾

14) 掛佛臺은 일반적으로 2~4基의 臺를 金堂 前庭에 金堂軸과 平行하게 造成하며, 그 中間에 幢竿을 窠아 掛佛을 거는 것을 일컫는다(具善會(1980), 前掲論文 p.82~83).

15) 密教에서는 이와같이 해석하여 幡尾를 4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幡은 반드시 4개로 한정되어있지는 않다(松本榮一(1938), 『敦煌出唐代花鳥幡』, 『考古學雜誌』 28-1. p.2).

(表 1) 文獻에 의거한 幡의 種類

分類方法	種 類
1. 材料	織物幡, 金銅幡, 絲幡, 玉幡, 板幡, 紙幡
2. 色	單色幡, 五色幡 ¹⁷⁾ , 八色幡 ¹⁸⁾ , 九色幡, 雜色幡
3. 크기 ¹⁹⁾	大幡, 小幡
4. 用所	堂幡, 庭幡, 屋上幡, 高座幡, 天蓋幡
5. 用法	續命幡 ²⁰⁾ 薦亡幡 ²¹⁾ 送葬幡 ²²⁾ 施餓鬼幡 ²³⁾ 灌頂幡 ²⁴⁾
6. 形態	佛像幡, 種子幡 ²⁵⁾ , 三昧耶幡 ²⁶⁾

- 16) 岡崎讓治(1984), 「莊嚴具」, 『佛教考古學講座』第5卷 佛具, 雄山閣, pp.27~31와 少野玄 妙(1925), 『佛教美術概論』, 丙午出版社 참조.
- 17) 五色絲幡이라고 하며 2가지 종류가 있다. 즉 하나는 靑, 黃, 赤, 白, 黑의 5색으로 만든 것으로 색의 순서, 배치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규칙이 없다. 다른 하나는 一幡一色으로 하여 五色을 모아 만든 것을 말한다. 이 五色幡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功德을 설하는 幡이라 한다(清水 乞編(1978), 『佛具辭典』, 東京堂出版, pp.114~115).
- 18) 白, 紅, 黑, 煙, 赤, 綠, 黃, 肉의 八色을 각 一流一色으로 배치하여 帝釋天, 火天, 炎魔天, 羅刹天, 伊舍那天, 毘沙門天, 風天, 水天의 標幟로 한 것으로 八方天幡이라고도 부른다.
- 19) 문헌중에는 大幡 혹은 小幡의 명칭이 자주 보이지만, 이는 大小의 차를 편의상 구별한 것으로 일정한 규칙은 없다. 그러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나 『藥師本願經』에 의하면 49傑幡(1093cm)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 최소한 大幡의 크기는 짐작하여 볼 수 있다(『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NO. 450. ‘…造五色彩幡 長四十九傑手 應放雜類衆生 至四十九…’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卷下 NO. 451 ‘…雜彩幡四十九首并一長幡四十九尺放四十九生是即能離災危難不爲諸橫惡鬼所持…’).
- 20) 이는 續命神幡, 壽命幡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延壽를 기원하기 위한 幡이다. 『藥師本願經』에는 ‘환자를 위하여 五色의 續命神幡을 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藥師本願經』, ‘懸著五色續命神幡 病人可以免病延壽’) 또한 아쇼카왕이 병을 얻었을 때 이 幡을 세운 功德으로 인해 25년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法苑珠林』 卷48, ‘阿育王懸幡延壽二十五年’).
- 21) 命過幡이라고도 부른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자의 福德을 쌓기위해 세웠던 幡이다(『廣普經』, ‘懸命過幡 亡者心得往生’).
- 22) 四本幡이라고도하며 葬禮에 이용된다. 白紙 또는 素絹으로 4개의 幡을 만들어 각각에 彌陀, 觀音, 勢至의 梵字와, 『涅槃經』에 쓰여져 있는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의 偈를 한 구절씩 나누어 쓴 것을 말한다.
- 23) 施餓鬼會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주로 간단한 紙幡을 사용한다. 이 幡에는 여래의 이름을 써넣는 것이 많아 如來幡이라고도 한다.
- 24) 灌頂(Abhisecama)이라는 것은 원래 불제자가 되게 하기위해 정수리에 물을 붓는 의식이지만 이같은 의식 대신에 灌頂幡을 매달아 그 밑을 지나가며 그 때 幡足이 머리에 닿게 함으로써 죄를 씻고 功德, 佛恩을 입어 불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 형태는 일반적인 幡의 모양을 띤 것도 있지만 日本의 대표적인 灌頂幡의 경우는 方形傘狀의 天蓋와 처마(軒先)에서 여러가닥의 장식이 드리워지고, 중앙에는 여러개의 마디가 있는 大幡이, 그리고 天蓋의 네모서리에는 小幡이 달려있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 25) 불 보살을 대신하여 幡身에 尊像의 種子 즉 梵字를 써넣은 幡.
- 26) 佛法幡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불·보살의 삼매야행을 묘사한 幡이다. 三昧耶(samaya)形이라함은 불·보살의 깨달음을 얻기위하여 세웠던 誓願을 形態로 표현한것으로 즉 諸佛의 印相, 關世音菩薩의 蓮華, 不動明王의 劍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幡의 종류는 사실상 실물보다는 문헌사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幡만을 가지고는 이와같은 세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幡의 用所와 用途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

B) 實物에 의한 種類

* 用所別 分類: 線이 걸리는 장소에 따라 크게 「벽걸이용 幡」, 「竿위의 幡」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27)

1) 벽걸이용 幡

이는 흔히 법당 주요내벽을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이 幡의 특징은 단지 한면만이 채색 혹은 장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敦煌에서 出土되는 佛傳圖幡들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幡手없이 幡身만이 있으며, 이 幡身을 上下 4단으로 나누어 그곳에 그림과 설명문 등을 넣고 있다. (圖 1) 또 어떤 경우는 1개의 幡이 아닌 여러개의 幡을 사용하여 佛傳 중의 중요한 사건에 관한 圖像을 一組로써 완비한 경우도 있다. 佛傳圖幡 이외에 幡에 佛像을 그리거나 繡놓아 불상대용으로 사용한 것도 이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2) 竿 위의 幡

이는 주로 塔의 相輪이나 법당내의 寶蓋 天蓋의 양측에 매달았던 것, 幢竿(幡竿)에 걸었던 것을 말하며 死者를 樂土로 導引하는 引路王菩薩이 右手에 쥐고 있는 幡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벽걸이용 幡이 한면만을 채색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竿대 幢竿用 幡은 양면채색되었으며 그 형태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幡手, 幡足을 지닌 일반적인 幡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를 그 형태에 따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a) 五色幡 : 幡身부분에 像을 표현하지 않고 단지 여러가지 색의 천조각들을 上下로 배치한 것 (圖 2)
- b) 幡身에 한장의 織物 혹은 종이등을 사용하여 그 위에 불교적인 여러 주제들을 표현한 것으로 佛, 觀音菩薩, 地藏菩薩, 四天王 뿐만아니라 蓮華紋, 唐草紋과 새 등 복합적인 주제를 나타낸 것도 있다. (圖 3)
- c) 약 15m에 달하는 긴 천위에 佛 혹은 菩薩을 상하로 연속배치한 것으로(圖 4) 이는 아마도 제식용으로 쓰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27) R. Van Gulik은 성소의 주요내벽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대형幡(*grandes bannieres*)과 기둥幡(*bannieres de pilier*), 이 두가지로 분류하였으며, Robert Jera-Bezard & Monique Maillard는 주제를 가진 대형幡(*grandes bannieres thematiques*)과 장방형幡(*bannieres oblongues*)으로 분류하였다. Robert Jera-Bezard & Monique Maillard(1985), "Origine et montage des bannieres peintes de Dunhuang", *Arts Asiatiques*, Tome I-1985, p.83.

* 用途別 分類 : 幡의 용도에 따라 莊嚴用, 供養用, 教化用, 標識用, 引道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莊嚴用幡

佛塔이나 佛殿 혹은 기타 신성한 建造物을 莊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莊嚴이란 단순히 꾸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종교적인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의미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莊嚴用幡의 종류로는 塔위 혹은 天蓋에 매달려있는 幡 등이 있다.

2) 供養用幡

이는 禮拜用幡이라고도 일컫는 것으로 즉 의식이 있을때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幡을 말한다. 그 예로는 佛像幡, 發願幡 등이 있다.

3) 教化用幡

일반대중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쉽게 전달해주고자 만든 것으로, 佛傳圖幡이 이에 속한다.

4) 標識用幡

사찰의 입구에 幢竿을 세워 그 당간에 幡을 매달아 聖域임을 표시하며, 아울러 辟邪의 의미도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

5) 引道用幡

引路王菩薩이 쥐고있는 幡이나 승려들의 持物로서의 幡이 예에 속한다.

II. 幡의 起源

앞장에서 幡은 ‘古代印度의 풍습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생겨난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幡이 印度 起源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깃대위에 깃발이 매달려있는 모습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軍人의 지휘에 사용되었던 軍旗, 村落 都城의 경계 표시, 무덤내의 부장품, 그리고 장례행렬의 길잡이로써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논의하고자하는 幡은 일반적인 깃발의 개념을 지닌 幡이 아닌 불교의 莊嚴具, 혹은 供養具로써 불교적 의미를 지닌 幡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것이기에 때문에 그 기원을 살피는데 있어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고대 印度에서는 종교의식이나 축제를 거행할 때 일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깃발들을 사용했다. 즉 雨期가 끝날 무렵 <<인드라신의 깃발축제>> 기간동안 깃발로 장식된 기둥을 세우도록 하였다.²⁸⁾ 佛教幡의 기원에는 이와같은 종교의식에 사용된 깃발 뿐만아니라, 특히 軍旗가 큰 역할

28) Robert Jera-Bezard & Monique Maillard(1985), p.84.

杉本卓州(1984), 『インド 佛塔の起源』—佛塔崇拜の生成基盤—, 平樂寺書店, p.314.

을 하였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다시말하면 武人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武勳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軍旗가 불교에 유입되어져 불·보살의 降魔의 威德을 나타내는 도구로써 사용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維摩經』 『阿舍經』을 통해 증명되었다.²⁹⁾ 이 이외에도 印度의 경전속에서 幡에 관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음은 I章 1節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印度 幡들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점도 없지만, 壁畫 혹은 彫刻등에 묘사된 例가 다수 발견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주목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마투라(Mathura)에서 出土된 底浮彫의 조각이 있다. (圖 5) B, C 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³⁰⁾ 보리수로 둘러싸여 있는 聖所를 보여주고 있다. 이 聖所의 上端과 下端에는 좌우로 각각 2개씩의 幡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 깃대에 걸려있는 장방형의 幡은 약 7~8개의 사각형 천을 상하로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사각형은 별모양의 모티프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큰 진주를 사용하여 連珠紋을 만들고 있다. 이 마투라의 浮彫彫刻은 불교본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예로서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다음에 들 바르후트(Bharhut)의 것과 더불어 불교본이 인도에서 기원했음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이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르후트(Bharhut)에서 出土된 또 다른 부조품이 있다.³¹⁾ (圖 6) 둥근 覆鉢의 양측면에 꽃혀진 깃대 위에 幡이 달려있고, 幡이 꽃혀있는 이 사리탑을 향하여 두 명의 신자들이 봉헌하고 있다. 이때의 幡의 모습은 長方形으로 마투라出土의 것과 매우 흡사하나, 그에 비해서는 다소 정적이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는 幡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위의 것들에 비하여 다소 시대가 떨어지지만 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르나트(Sarnath)出土의 조각³²⁾이 있다. (圖 7) 사리탑을 묘사하고 있는 이 저부조의 조각에는 기울어진 깃대에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는 幡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마치 총채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이 幡은 가운데가 갈라져 있으며 아랫부분이 둥글려져 있는 특이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매달려있는 모양 또한 주목되는데 마치 둥근고리를 사용하여 묶어놓은 듯하다. 이같은 형태는 後述할 ‘제비꼬리형 幡’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아마도 長方形의 幡을 그와같은 고리를 사용하여 묶음으로 인하여 생긴 형태가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후술할 ‘제비꼬리형 幡’의 祖形이라 생각되는 예로 특히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고대인도의 관습은 幡을 단독으로 게양하기 보다는 사리탑에 봉헌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그 후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졌고 드디어 3~4세기경에는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기에 이르른다.

그 전과과정에서 나타나는 예로는 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라스(Chilas)남쪽의

29) 注 2, 3 참조.

30) Coomaraswamy, 山本智教譯(1944), 『印度及び東南亞細亞美術史』, 東京, 北海出版社, 圖 70 참조.

31) 佛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團助成研究會報告書 第15冊, 『佛教美術における“莊嚴”』, 1987, 圖 2 참조.

32) 肥塚 隆編著(1983), 『天竺への旅』 第2集 佛像の源流をたずねて, p.116, 圖 8-21 참조.

샤티알(Shatial)바위조각이 있다.³²⁾ (圖 8) 이는 後述할 ‘제비꼬리형 幡’의 이전 단계라 생각되는 것으로 위에서 본 장방형 幡이 다소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幡의 끝은 長方形 幡과 마찬가지로 지이나, 매어다는 부분의 끝이 좁혀져 그 평면도는 마치 긴 이등변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전 단계의 幡은 깃대에 매달아 사리탑에 봉안하였기 때문에 장방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이 경우는 깃대없이 직접 사리탑의 상륜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같은 형태로 나타나게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幡은 그 형태가 원래 삼각형이 아니라 위의 例와 같은 장방형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단계의 예로는 쿠차(kutcha)근처의 키질(Qyjil)암벽성소 벽화³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圖 9, 10, 11) 키질벽화에 나타난 幡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앞서보았던 평면도가 이등변삼각형이면서 바람에 날리는 모양의 幡(圖 9). 두번째는 끝이 뾰족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마치 구부러진 지팡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圖 10). 끝으로 세번째는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圖 11) 이다. 이들 중 첫번째와 세번째의 것은 38굴에 함께 나타나는 예로 4세기경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키질벽화제작의 초기에는 이등변삼각형인 형태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구부러진 지팡이모양의 것과 함께 나타나다가, 그 후 앞단계의 것은 사라지고 지팡이 모양의 것만이 남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사리탑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幡은 5~6세기경에 이르르면 바미얀(Bamiyan)에서 敦煌(Dunhuang)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 전지역에서 유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 형식은 계속 변하여 뾰족한 끝이 한 가닥이었던 것이 두갈래로 바뀐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만들어졌던 형태로, 제비꼬리와 유사하다하여 일명 ‘제비꼬리형 幡’이라고 부른다.³⁵⁾ 이처럼 한가닥이었던 번의 끝이 두갈래로 나뉘게 된 이유는 번의 효용성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즉 끝을 갈라놓은 것이 방형으로 만든 것보다는 세찬 바람이 불었을 때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제비꼬리형 幡’은 칠라스, 길기트지역에서 圖8와 함께 보이는데 그 제작시기는 키질벽화에 비해 약 1-2세기 가량 늦다.³⁶⁾ 이곳의 ‘제비꼬리형 幡’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圖8와 같이 幡의 끝이 일직선으로 되어있으면서 두갈래로 나뉜것(圖 12), 두번째는 두갈래로 나뉜 끝이 제비꼬리형으로 뾰족한것(圖 13)이다. 이 중 後者가 前者에 비하여 다소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생각되며, 이와같은 ‘제비꼬리형 幡’은 5세기경 바미얀(Bam-

33) Ahmad Hasan Dani(1983), *Human Records on Karakorum Highway*, Quaid-i-Azam University, Islamabad, p.19.

34) 中國石窟『キジル石窟』一, 二(1983), 新疆ウイグル自治區文物管理委員會·拜城縣キジル千佛洞文物保管所, 東京, 平凡社.

35) 이하 ‘제비꼬리형 幡’이라 假稱.

36) Pitt Rivers Museum & Department of Ethnology and prehistory University of Oxford(1987), *Between Gandhara and the Silk Road; Rock-carvings along the Karakoram Highway*, philipp von Zabern, p.20; Ahmad Hasan Dani(1983), pp.56~57.

iyān)³⁷⁾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222굴과 C그룹 165굴의 예는 그 형태가 독특하여 圖10보다 훨씬 꼬불꼬불한 지팡이모양이면서 그 끝은 제비꼬리형을 하고 있다. (圖 14,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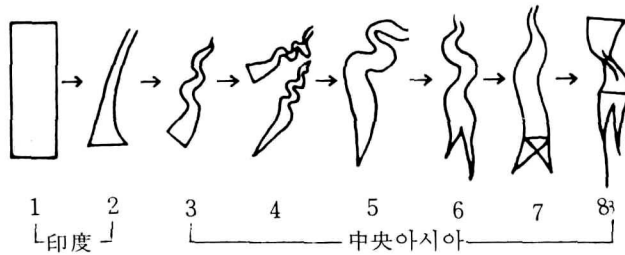
이와 거의 유사한 예로 바미얀에서 東北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5-6세기경의 카크락(Kakrak)石窟群의 佛蹟³⁸⁾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坐佛像群의 벽화(圖 15)에는 幡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幡의 경우는 바미얀의 예와 거의 유사하지만 바미얀의 것이 幡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비해 전체적인 길이도 짧고 구불거림도 덜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끝으로 호탄(Khotan)근처의 발라와스트(Balawaste)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리탑에 관하여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圖 16) 현재 뉴델리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벽화에는 坐佛이 그려져 있고 그 좌불의 옷에 사리탑이 장식되어 있다. 이 사리탑과 그 위에 걸려있는 幡은 아주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계양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된다. 앞서 논의했던 여러 종류의 사리탑에 걸려있는 幡들은 모두가 어떠한 방법으로 매달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발라와스트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幡은 相輪部 꼭대기에 3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바퀴모양의 것이었고 그 바로아래 긴막대기를 가로로 고정시켜 그곳에 끈으로 幡을 묶어 매달아 놓고 있다. 또한 幡의 상단부분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대의 幡들이 幡頭와 幡身의 사이에 가는 막대기를 넣어 幡의 형태를 고정시키듯이 幡의 상단부에 가는 막대를 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벽화는 약 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幡의 형태는 '제비꼬리형 幡'으로 앞의 것들에 비해 幡身이 짧아지고 꼬리부분이 다소 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 후기 '제비꼬리형 幡'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幡의 기원에 해당되는 몇가지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삽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挿圖 2) 가장 초기의 것은 단순한 長方形으로 이와같은 장방형의 번은 깃대에 매달려 탑을 장식하였다. 그 후 점차 시대가 지나 깃대를 사용하지 않고 탑의 상륜부에 직접 매달리게 되면서부터 평면도가 이등변삼각형인 형태로 바뀐다. 평면도가 이등변삼각형을 이루던 幡은 시대가 다소 지나면 바람에 날리는 구불구불한 형태로 바뀌며, 이같은 幡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끝이 뾰족하면서 구불구불한 지팡이 모양의 幡과 함께 보이기도 한다. 그 후 앞단계의 것은 사라지고 끝이 뾰족한 지팡이 모양의 것만이 단독으로 보이다가 한가닥이었던 끝이 두갈래로 나뉘면서 일명 '제비꼬리형 幡'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제비꼬리형 幡은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성행되다가 곧 중국에 유입되어져 中國唐幡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37) 桶口隆康(1980), 『ペーミヤンの石窟』(東京, 同朋舎, p.62, 121. 圖 20, 21)과 定方晟, 「ペーミヤンの佛教遺跡について」(『東京大學紀要』文學部 11, 1968) 참조.

38) 宮治 昭, モタメヂ 遙子編(1979) 『シルクロード 博物館』, 世界の博物館 19 (東京, 講談社, p.117. 圖 237)과 Tamara Talbot Rice, *Ancient Arts of Central Asia*, London, 1965, p.166 참조.



(插圖 2) 壁畫에 나타난 印度·中央아시아 幡

Ⅲ. 7~9세기 中國唐幡의 形成과 樣式의 特徵

1. 唐幡의 形成過程

앞서 印度와 中央아시아를 중심으로 幡의 起源에 해당되는 많은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예들은 제비꼬리형의 긴 幡尾만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幡頭, 幡手까지 갖춘 형태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그 계양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같이 幡頭, 幡手와 확실한 계양형태를 갖춘 幡들은 오직 중국의 唐代에 이르러서야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확실한 계양형태를 지니고 또한 幡頭, 幡手를 갖춘 형태의 幡’을 ‘唐幡’이라고 칭하여 서술토록 하겠다.³⁹⁾

중국에서도 불교가 유입되고 난 후 唐幡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이미 앞서 중앙아시아 여러지역의 예들을 통해 살펴본 형태와 같은 ‘제비꼬리형 幡’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唐幡이 형성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幡에 관하여 살펴보되 불교유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우선 불교유입 이전의 幡에 관하여 문헌과 실물을 통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교유입 이후의 幡은 唐幡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예들을 문헌자료와 벽화에 나타난 幡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고찰토록 하겠다.

A) 불교유입 이전의 幡

중국에서는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장엄구로써의 幡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幡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사료에 나타난다.

우선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기 전, 여러 문헌에 보이는 幡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崔豹의 『古今注』에 ‘信幡은 옛날의 旗幟이다. 官號를 題表하여 符信을 삼은 바이다’⁴⁰⁾라 언급하고

39) 이하 ‘唐幡’이라 假稱. 이는 唐代에 성립되고 유행되었다하여 그와같이 이름붙인 것이다.

40) 崔豹, 『古今注』 信幡條, ‘信幡, 古之徽號也 所以題表官號以爲符信’

있어 信幡은 옛날의 깃발, 혹은 旗章일 뿐만아니라 符信 즉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信幡에 관한 기록 이외에도 『漢書』에는 ‘單于의 城을 바라다 보니 그 위에 五色의 幡이 세워져 있고…’⁴¹⁾라 하고 있어 軍勢와 함께 당시 경계의 표시로서 城위에 幡을 세워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漢書』의 다른 부분에서는 ‘博士의 弟子, 濟南郡의 王咸은 幡을 太學의 아래에서 드니…’⁴²⁾라 하여 幡을 손에 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신분을 상징하는 표시로 번을 사용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잘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이미 중국에는 증명서로서, 경계의 표시로서, 또한 군대의 軍旗로서 幡은 널리 사용되었다. 그 후 後漢代 불교가 유입된 이후에도 불교와 무관한 幡은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불교유입 이후의 幡’의 項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이러한 문헌기록 이외에도 실제로 불교수용 이전 幡의 실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우선 長沙 馬王堆 第1號墳에서 발견된 幡畫(圖 17)를 들 수 있다. 마왕퇴 제1호분은 B. C168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幡畫는 현존 번에 관한 실물자료로는 단연 세계 最古의 例라 하겠다. 이것은 당시까지 가장 오래된 실물로 알려진 8세기 초경의 敦煌출토의 幡들보다 약 1000년 가량 앞선 것으로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⁴³⁾ 물론 이 幡畫는 本稿에서 서술하고 있는 불교장엄구로써의 幡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형태에서 다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상세히 설명코자 한다.

우선 그 형태는 상부 끝이 대나무가지에 달려있고, 그 위에는 벽에 걸 수 있도록 絹으로 된 끈이 달려 있으며, T자의 각 모서리에는 장식용 술도 달려있다. 또한 가장 아래부분에 地下界, 그위에 人間界, 그리고 天界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三才思想의 實例를 보여준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 표현물⁴⁴⁾’이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성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長沙市 子彈庫 1號墓에서 出土된 戰國시기의 「人物御龍帛畫」(圖 18)가 있다. 墓의 주인 즉 死者가 용위에 타고 바람과 파도를 헤치면서 더 나은 이상세계로 올라가려는 장면⁴⁵⁾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上端이 가는 대나무 막대에 달려있고 어딘가에 걸 수 있는 끈이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위의 두 예를 들어 幡의 기원을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예들이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어딘가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중에서 가장 이른예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불교번의 기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

41) 『漢書』 陳湯傳 ‘… 望見單于城上五采幡幟…’ (小竹武夫譯(1979), 『漢書』 下卷 列傳Ⅱ, 筑摩書房, p.19).

42) 『漢書』 鮑宣傳 第42, ‘博士弟子濟南王咸 幡太學下’ (小竹武夫譯(1979), 中卷 列傳Ⅰ, p.469).

43) 이 墓의 매장년대는 B. C 168년으로 추정된다(湖南省博物館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共編, 關野雄等譯, 『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上集, 平凡社).

44) 마이클 로이, 李成珪譯(1987), 『古代中國人の生死觀』, 서울, 知識産業社, pp.133~135.

45) 이에 관하여 郭末若은 『楚辭』의 ‘乘龍’ ‘駕龍’ ‘駕龍舟’와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湖南省博物館(1973), 「新發現的長沙戰國楚墓帛書」, 『文物』 1973. 7, p.3).

단 논의로 하겠다.⁴⁶⁾ 그러나 중국에는 최소한 B. C 3c부터 어딘가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번의 종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에서 든 불교유입 이전의 번에 관한 예들은 모두 幡의 초기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불교장엄구로서의 幡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리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幡’이라고도 부를 것인가, 단지 ‘帛畫’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번이 불교유입 이후 중국 불교번의 형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B) 불교유입 이후의 幡

後漢代 불교가 수용된 이후에도 증명서나 경계의 표시 또는 군기로서 사용되던 幡은 계속해서 널리 사용되었다.

즉 『古今注』 信幡條에는 ‘魏晉시기의 信幡에는 靑龍, 白虎, 朱雀, 玄武, 黃龍을 그렸다’⁴⁷⁾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漢代의 四神을 그리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불교와는 무관한 것이며, 또한 쫓나라때 傳旨나 兵士를 그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騶虞幡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48) 뿐만아니라 『吳志』에 의하면 ‘거짓으로 항복하여 幡旗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⁴⁹⁾ 전쟁시 軍旗로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佛敎幡은 불교사원의 성행과 함께 황실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 졌다. 즉 불교사원에서는 주로 莊嚴幡이 만들어 졌으며, 그 이외의 많은 불교신도들은 재난을 막고, 병을 낫게하며, 장수를 빌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數의 供養幡을 만들었다. 『洛陽伽藍記』에 ‘幡, 幢이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숲과 같다.’⁵⁰⁾라고 서술되어 있어 이를 증명해 준다. 뿐만아니라 ‘王公貴族들이 어떤때는 한번에 베푸는 幡의 양이二千個에 달한다’⁵¹⁾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의 幡이 제작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幡의 사용에 관해서는 승려 道安(314~385)의 『釋道安傳』에 의해 밝혀진다.⁵²⁾ 그는 ‘前

46) 위의 두 예가 불교번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薦亡幡이나, 引路王菩薩신앙과는 궁극적으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생전에 행한 善惡에 따라 심판을 받고 善人의 영혼은 樂土로 인도되어져 樂을 얻고, 惡人의 영혼은 苦界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는 생각들이다. 이때 善人의 영혼을 특별히 樂土로 인도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많은 것 중에 幡을 그 지물로 하는 引路王菩薩이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死者의 福德을 쌓기위하여 세웠던 薦亡幡(命過幡)과 그 내포하는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7) 『中華古今注』 信幡條 ‘魏朝有靑龍幡 朱雀幡 玄武幡 白虎幡 黃龍幡’ ‘今晉朝唯用白虎幡’

48) 『廿二史劄記』 卷八 騶虞幡條 ‘晉制最重騶虞幡 每至危險時 或用以傳旨 或用以止兵 見之者輒懼 伏而不敢動 亦一朝之令甲也’ ([清] 趙翼著, 王樹民校證, 『廿二史劄記校證』 上冊, 中華書局, 1982, p.171).

49) 『吳志』 孫權傳, ‘…僞降立幡旗…’.

50) 『洛陽伽藍記』 第3 景明寺條, ‘于時金花映日 寶蓋浮雲 幢幡若林’.

51) 『洛陽伽藍記』 第5 宋雲惠生使西域條, ‘惠生初發京師之日 皇太后勅付五色百尺幡千口 錦香袋五百枚 王公卿士幡二千口 惠生從于闐 至乾陀羅 所有佛事處 悉皆流布至此頓盡 惟留太后百尺幡一口 擬奉尸毘塔’.

52) 『高僧傳 釋道安傳』 ‘符堅遣使 送外國金箔倚像 高七尺 又金坐像 結珠彌勒像 金縷繡像 織成像 各一尊’ ‘…每講會法聚 輒羅列尊像 布置幢幡’.

秦의 符堅이 外國(즉 西域)에 사신을 보낼때에는 金銅像 외에 金縷의 繡像, 織成의 像을 보냈다'라고 하며, 또한 363~379년 신강지방에서 머무는 동안의 기록에서 '法會가 있을때마다 尊像을 나열해 놓고, 幢幡을 배치하였다.'라고 쓰고있다.

사리탑 相輪部에 장식된 幡에 관해서는 『洛陽伽藍記』의 중국 승려인 宋雲(518~522)과 惠生の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들은 '호탄(Khotan)왕국의 사리탑이나 기타 여러곳(新疆...)의 사리탑에는 絹으로 된 수많은 幡들이 장식되어 있다'라고 기술하였으며 또한 '그 중 과반수이상인 北魏時代의 幡으로, 주로 太和 19年(495), 景明 2年(501), 延昌 2年(513) 등의 紀年이 많고, 다만 그중 하나의 幡만이 後秦(4세기末~5세기初) 姚興때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³⁾ 宋雲과 惠生은 幡의 형태에 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가져온 幡과 그 지역 자체내에서 만들어진 幡을 구별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서역불교사원에서는 이들중 특히 중국의 絹織物이 귀하게 여겨져, 중국의 승려가 이것을 寄進해서 一宿一飯의 노자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따라서 서역의 여러나라 사람들이 錦, 平絹을 위시하여 중국의 絹織物을 얼마나 애호했는가를 알 수 있다. ⁵⁴⁾ 불교는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유입되어 졌지만, 幡의 경우는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유입되어 진 후 중국의 뛰어난 견직물 기술에 의해 다시 서역으로 역수출되어 호평받았다는 점에서 특기되어 진다.

또 敦煌出土의 두루마리중에는 당시 전문적으로 불경을 베껴쓰는 寫經生외에 書幡人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⁵⁵⁾ 이러한 書幡人의 존재는 敦煌에서 幡의 수량이 상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대량으로 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량의 絲織物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敦煌에서도 상당량의 蠶絲생산이 있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內地에서의 대량공급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가 수용되고 난 이후부터 唐幡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존재했던 幡들 중에서도 현재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한점도 없다. 혹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원형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단편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의 원형이 변이되었는지 혹은 의복의 재료로 쓰였던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정도이어서 당시의 변에 관해 살펴 보기 위해서는 벽화에 남아있는 형태를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本稿에서 서술하고자하는 佛敎幡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벽걸이용 刺繡幡으로서 현재 중국

53) 洛陽伽藍記』卷5 宋雲與惠生使西域條 '(城)南十五里有一大寺... 懸采幡蓋 亦有萬計 魏國之幡過半矣 幡上隸書多云太和十九年 景明二年 延昌二年 唯有一幡 觀其年號是姚興時幡'(『中國古典文學大系』21).

54) 中國에서는 漢대부터 이미 上質의 織物 그중에서도 특히 絹織物이 발달하여 西域에까지 중국의 織物이 널리 퍼졌으며, 따라서 이같은 多量의 織物 생산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활발한 교류관계를 맺었다(拙稿(1990), 「실크로드의 染織」『中國大陸의 文化』1 東國大學校編, 한국언론자료간행회, pp.226~230 이와같이 紀元前後 時期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絹織物은 이후 隋, 唐代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특히 唐代에는 인도기원의 幡을 絹으로 제작하여 서역으로 역수출하기에 이른다.

55) 敦煌文物研究所考古組(1972) 「莫高窟發現的唐代絲織物及其他」, 『文物』1972-12, p.61.

에 남아있는것 중 最古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65년 敦煌莫高窟 125, 126窟 前方에서 발견된 北魏시대의 刺繡釋迦說法圖⁵⁶⁾라 할 수 있겠다. (圖 19)

이 說法圖은 원래 長方形이었으며, 全面에 桴차게 釋迦說法圖가 繡놓아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하반부만이 남아있어, 가운데 蓮華座위에 올려져 있는 맨발의 佛足과 그 아래 여러 供養者像만 보이고 있다. 하부 중앙에 있는 願文의 오른쪽에는 男子供養像이 있고, 파손되어 분명하지 않지만 「…王」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願文의 왼쪽에는 女子供養像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꽤 남아있어 그 題名도 읽을 수 있다. 中央의 願文은 결실된 부분이 많지만, 「…十一年四月八日直 廣陽王慧安造」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오른쪽에는 廣陽王을 시작으로 5인의 남자공양자상, 왼쪽에는 廣陽王의 母, 부인, 딸 등 5인의 여자공양자상인 것으로 추측된다.⁵⁷⁾ 廣陽王의 이름은 『北史』, 『魏史』등에 모두 4번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元氏로 北魏의 皇族이었다. 이들 중 이때의 광양왕은 4명중 元嘉이며, 따라서 「…11年」은 「太和11年」(487) 이라 추측된다.⁵⁸⁾

이 刺繡說法圖는 현재 파손이 심하여 그 原形을 추측해 볼 수 없지만, 아마도 幡手는 물론 幡尾조차 없이 단지 幡身만으로 이루어진 장방형이었을 것이다. 당시 벽화 등에 나타나는 북위시대 幡의 모습들로 미루어보면 幡尾가 길게 늘어진 제비꼬리형 幡이 유행되었으나 이 경우는 그와는 다른 앞서 서술한 번의 종류중 벽걸이용번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佛傳圖幡과 같이 長方形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이외에는 비록 실물이 아닌 간접자료이기는 하지만 벽화를 통하여 唐幡이전의 佛教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敦煌莫高窟은 4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壁畫와 塑像이 있는 石窟은 약 500여기에 달한다.⁵⁹⁾ 이같이 거대한 敦煌의 벽화에는 많은 幡들이 보이나, 이들 중 가장 이른시기의 것은 5세기 중엽에서 말경사이에 제작된 北魏時代 幡들이다.

이는 第257窟 南壁中央의 「沙彌守戒自殺因緣圖」(圖 20)로 탑의 相輪部에 幡尾를 길게 늘여뜨린 幡이 묘사되어 있다.⁶⁰⁾ 그 형태는 앞서 본 중앙아시아의 제비꼬리형 幡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幡尾의 길이가 유난히 길어진 것 등의 몇가지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다. 즉 幡尾의 표현에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幡들이 幡身과 幡尾가 한조각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이 幡의 경우는 幡身과 幡尾를 각각의 천을 사용하여 서로 이어놓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幡身 자체의 표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중국의 唐幡들이 수평분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 幡의 경우는 幡身に

56) 敦煌文物研究所(1972), 「新發現的北魏刺繡」, 『文物』 1972 - 2, pp.57~58.

57) 岡崎敬(1980), 『增補 東西交渉の考古學』, 東京, 平凡社, pp.471~473.

58) 이 廣陽王은 慧安이라는 法名이 있고, 妻는 普賢, 그 딸은 燈明이라는 法名을 가지고 있어 이 때의 廣陽王이 元嘉 廣陽王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11年」은 「太和11年」인 487년이 확실하다(敦煌文物研究所(1972), 前掲論文, pp.56~57).

59) 敦煌文物研究所編(1981), 『敦煌莫高窟』 第1卷, 東京, 平凡社.

60) 敦煌文物研究所編(1981), 『敦煌莫高窟』 卷1卷, 圖 40 참조.

두줄의 수직선을 그어 전체를 3면으로 나누어 綠, 白色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같이 북위시대 敦煌벽화에 나타난 幡의 모습은 중앙아시아의 제비꼬리형幡과 몇가지 차이는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 계양장소가 탑의 상륜부라는 점, 幡身이 단지 한장의 천으로만 표현되었다는 점, 幡尾가 여전히 제비꼬리형이라는 점, 그리고 唐幡의 전형인 幡頭, 幡手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적어도 북위시대까지는 중앙아시아 幡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⁶¹⁾

雲岡石窟 第2洞과 11洞의 내벽에 底浮彫로 조각되어 있는 幡이 있다. 雲岡石窟은 460년부터 540년경까지 약7,80년간 造建된 석굴로 초기에는 서방적인 경향이 강하나 후기에는 순중국적인 요소와 특색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⁶²⁾ 幡이 조각되어 있는 第2洞과 11洞은 5세기 말경에 제작된 중기의 것으로 幡이 조각으로 나타난 예로는 중국에서 가장 이른 것이다.

우선 雲岡石窟 第11洞 南壁上層東部 浮彫三層塔(圖 21)은 後述할 第2洞의 것과 거의 유사하나 그에 비해 다소 古式을 띄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幡身이 3段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第2洞 幡(圖 22)의 幡身과는 달리 幡身の 2중 테두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날리는 幡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幡身の 上端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발라와스트벽화의 幡과 같이 가는 막대를 넣어 고정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幡은 처음에는 幡의 모양대로 線刻한 후 그위에 흰색으로 덧칠하고 푸른색으로 連珠文을 그려넣어 장식하고 있다.

第2洞(圖 22)은 5세기 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동굴의 東壁中層에는 사리탑이 조각되어 있고, 각 층에는 壁龕이 파여있어 그곳에 坐佛들이 모셔져 있다. 이 사리탑의 상륜부에는 幡身을 3~4 조각의 천들로 이어만든 幡이 있다. 이는 발라와스트벽화의 幡(圖 16)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나 차이가 있다면 발라와스트벽화의 것은 앞서 본 대부분의 幡과 마찬가지로 幡身이 하나로 되어있는 것에 반해 雲岡石窟의 것은 幡身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敦煌 제305굴의 天蓋 밑에 달려 있는 隋代幡(圖 24)의 幡身과 흡사하다. 그림29의 경우 조각품이어서 현재 색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幡이 벽화로 표현되어 있었다면 수평분할되어 있는 대부분의 幡들이 그러하듯이 아마도 각 단마다 색이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이 幡은 唐幡의 대표적인 형태인 五色幡의 가장 이른 예로 보

61) 郭魯柏이 『西域考古記要』에서 '스타인이 敦煌으로부터 가져간 幡들은 옛날 인도의 탑에 걸어놓은 旗幟를 모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樊金試, 馬世長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그들의 주장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 幡이 형태상으로는 다소 변한점이 있으나 그것은 中國幡의 고유한 특징을 계승하여 자가 발전한 것이지 결코 옛날 인도의 幡을 모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敦煌文物研究所考古組(1972), 前掲論文, pp.61~62 참조). 筆者는 비록 郭魯柏의 글은 접해 보지 못하였으나 雲岡, 敦煌壁畫에 나타난 幡의 모습들로만 유추해 보아도 이곳의 '제비꼬리형幡'이 인도, 중앙아시아의 幡에서 유래하였음은 자명하다. 뿐만아니라 唐幡 또한 唐幡이전의 이러한 '제비꼬리형幡'의 형태에서 발전해 나간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므로 樊金試, 馬世長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62) 長廣敏雄(1976), 『雲岡石窟』中國文化史蹟 解説篇, 東京, 世界文化社, p.22. 雲岡石窟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雲岡文物保管所編(1990), 『雲岡石窟』卷1, 2, (平凡社)와 NHK取材班(1977), 『雲岡石窟の旅』(日本放送出版協會) 참조.

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운강석굴에 보이는 이 幡의 모습들은 圖20의 北魏시대의 幡, 後述할 圖23 北周시대의 幡과 함께 隋代幡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幡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幡이 모두 혼합되어 圖24와 같은 隋代幡이 탄생하였을 것이며, 특히 雲岡 第2洞의 幡은 隋代幡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³⁾

558년에서 581사이의 北周시대에 제작된 敦煌莫高窟 第428窟의 幡(圖 23)⁶⁴⁾은 앞서든 예와 마찬가지로 역시 사리탑 상륜부에 매달려 있다.⁶⁵⁾ 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씩 매달려 있는 이 4개의 긴 幡은 역시 제비꼬리형의 길다란 幡尾를 지니고 있으나, 幡上端의 표현에 있어 마치 수대의 번과 같이 세줄의 띠를 사용하여 매어달고 있다. 幡身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靑, 白, 黑色의 3색을 이용하여 3, 4개의 段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黑色의 경우는 원래 黑色이었던 것이 아니라 赤色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黑色으로 바뀐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幡 또한 五色幡의 이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隋代에 이르르면 사리탑 꼭대기에서 날리던 幡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天蓋아래 매달거나, 幢竿에 걸거나, 혹은 스님들이 손에 쥐고있는 깃대에 매달려 있는 幡의 모습들이 벽화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敦煌 제305窟 서벽북측의 佛說法圖(圖 24)에는 天蓋 아래 매달려 있는 隋代의 幡이 묘사되어 있다. 이 隋代 幡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幡과는 과격적으로 다른 것으로 제비꼬리형의 幡尾가 사라진 대신 3개 내지 4개의 긴 사각형의 끈들을 幡身 아래에 덧붙여 唐幡 전형의 幡足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幡手が 幡身의 上端 양 끝에 부착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 형태 또한 특이하여 검은색의 가는 끈이 幡身의 중간부분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幡身의 상단에는 幡身의 폭보다 좁은 黑色의 사각형 천을 엮고 3개의 끈을 연결시켜 매달고 있으며, 幡身 각 段의 경계선 마다에는 구슬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다. 각 段의 길이도 앞서 본 北魏 혹은 北周시대의 것에 비해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자연 段의 數도 많아졌다. 幡身 각 단의 길이 뿐만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긴 한장의 천위에 네조각의 사각형천을 덧대어 꿰매놓은 듯한 형태로써 다른 시대의 幡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같은 모양의 幡身은 隋代까지만 나타날 뿐 唐幡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隋代의 幡으로는 敦煌 第302窟의 前室部南壁 佛說法圖(圖 25)가 있다. 이 幡은 305窟의

63) 이하 雲岡石窟에 나타난 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雲岡石窟의 幡」, 『中國大陸의 文化』 5, 東國大學校編,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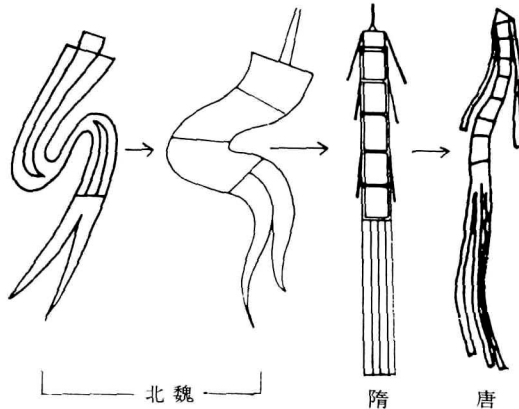
64) 敦煌文物研究所編(1981), 『敦煌莫高窟』 第1卷, 圖 165 참조.

65)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이와같이 사리탑 相輪部에서 필러이는 幡의 모습은 이 幡을 끝으로 隋,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다가 宋代가서 다시 탑의 상륜부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이는 인도, 중앙아시아에서 사리탑의 꼭대기에 幡을 매어달아 장엄하던 풍습이 제비꼬리형번과 함께 전해진 것으로 중국 초기번의 대부분이 그러한 모습이다.

幡과 거의 유사하지만 305窟의 것은 幡手が 幡身의 上端 양끝에 2개만 매달려 있었던 것에 반해 이 302窟의 것은 각 단의 경계부분마다 가는 띠모양의 幡手와 둥근 구슬모양의 장식이 교대로 부착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같은 특색을 지닌 隋代의 幡들은 日本의 法隆寺系 幡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어서 주목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韓國·日本의 古代幡」에서 상세히 논의하겠다.

이상에서 中國 幡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唐幡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그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처음 중앙아시아에서 불교와 함께 유입될 때에는 幡頭와 幡手없이 그곳에서 유행하던 제비꼬리형 幡尾만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幡들이 차츰 중국화되면서 唐幡에서 주로 나타나는 긴 리본형태의 幡尾(幡足)으로 바뀌며, 희미하게나마 幡頭도 생기고 幡手도 보이면서 隋代 幡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幡을 가장 특징짓는 점은 幡頭와 各段의 크기로 특히 後者의 경우는 더욱 뚜렷하다. 즉 北魏시대에는 幡身이 一枚로만 이루어져 있던 것이 北周시기가 되면 비록 각 단의 길이가 길지만 幡身이 몇개의 段으로 나뉜다. 隋代가 되면 北周의 것보다 더욱 길이가 짧아지면서 비록 3줄의 띠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幡頭의 모양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挿圖 3 참조)



(挿圖 3) 壁畫에 나타난 唐幡의 形成過程

2. 唐幡의 樣式的 特徵

앞서 印度起源의 幡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유입되는 과정과 유입된 후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불교와 함께 유입된 佛教莊嚴具로서의 ‘幡’은 초기에는 중앙아시아幡의 形制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중국특유의 幡을 형성하면서, 반드시 莊嚴具用으로서가 아닌 供養用, 教化用, 標識用, 引道用 등 다양한 용도로 대량의 幡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唐代에

幡이 얼마나 많이 유행하였던가에 관해서는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⁶⁶⁾ 즉 眞德女王이 왕위에 오르자 친히 太平歌를 짓고 비단을 짜서 唐나라에 바친일이 있는데 이 때 태평가의 歌詞중에 ‘幡은 어찌 그리 빛나는가 징소리 북소리는 웅장도 하여라’라는 하고 있어 이를 증명해 준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중국특유의 幡이 특히 唐代에 성립되고 유행되었기 때문에 ‘唐幡’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唐幡이란 幡頭, 幡手를 모두 갖춘 것으로, 唐이전에는 幡頭와 幡身없이 단지 幡身과 幡尾로만 이루어져 있던 幡, 즉 제비꼬리형 幡이 唐代에 이르러 幡頭와 幡手를 모두 갖춘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한 것이다. 이같이 완전한 형태를 갖춘 唐幡의 양식적 특징에 관하여 敦煌莫高窟 등의 벽화와 敦煌出土의 스타인(Sir. Aurel Stein)수집품 그리고 기타 여러지역의 出土品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A) 初唐(618~712)

初唐기에 제작된 敦煌莫高窟 第323窟 南壁西側上部(圖 26) 阿育王像 傳說圖에 보이는 幡의 경우 그 형태는 앞서본 제비꼬리형번과 같으나 용도는 다양하다.⁶⁷⁾ 즉 앞서 본 幡들과 같이 塔위나 혹은 天蓋아래 걸려진 것이 아니라, 僧이 무릎을 꿇고 供養하는 供養盤의 좌우에 깃대가 세워져 그 위에 幡이 걸려있는 모습이다. (圖 26) 이 幡의 두드러진 특징은 幡頭를 삼각형 모양의 직물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데 있으며 또한 비록 아직 幡手도 보이지 않고 있고, 幡尾도 여전히 제비꼬리형을 띄고 있지만 각 段의 길이가 前代에 비하여 눈에 띄게 짧아진 모습에서 唐幡의 가장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幡身은 5~6개의 段으로 나누어 五色으로 장식하였으나, 각각의 段 안에는 아무런 장식이 되어있지 않다.

圖26과 거의 같은 時期에 제작된 敦煌 第332窟 南壁上部的 涅槃變相圖(圖27)에는 三角形의 幡頭, 幡頭的 밑변 양측에 달려있는 2개의 幡手, 리본모양의 긴 幡尾(幡足)를 지닌 完全한 形態의 唐幡이 보인다. 이들 幡의 경우는 깃대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圖26과 같으나, 그 계양형태에 있어서 圖26의 경우는 단순히 깃대끝에 달려있는데 반해 332窟 幡의 경우는 龍頭, 蓮花를 깃대위에 꽃고 그곳에 幡을 달고 있어 특이하다. 8~9개의 여러색 段으로 이루어진 幡身은 중앙에 5~6개의 진주가 등글게 連珠文을 이루며 장식되어 있다. 幡尾의 경우는 그 길이가 짧으면서 끝이 뾰족한 제비꼬리형이 아니라 앞서본 隋代幡과 같이 길다란 리본이 바람에 훑날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隋代 이후의 幡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2~3개가 보통이지만 4~5개의 幡尾를 지닌것도 있다.

이상과 같이 唐代 初期까지는 단지 벽화에 나타난 幡만이 있을 뿐, 실물로써 남아있는 佛教幡은 없다. 그러나 唐代 절정기 즉 盛唐期(712~781)가 되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많은 幡들이 있어 주목된다.

66) 『三國遺事』 卷第1 眞德王, ‘...幡旗何赫赫 鈸鼓何 鈸鈸’.

67) 敦煌文物研究所編(1981), 『敦煌莫高窟』 第3卷, 圖 64 참조.

B) 盛唐(712~781)

1965년 敦煌莫高窟 第130窟의 내부와 122, 123窟의 前方에서 盛唐時期的 幡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았다. 第130窟은 唐 玄宗의 開元 天寶年代(713 755)에 開鑿되어진 것이며, 122, 123窟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에서 발견된 수십점의 絲織物은 대부분이 幡으로, 여러가지 수법을 사용해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어서 특히 주목된다.⁶⁸⁾ 즉 平絹, 綺, 錦 등으로 이루어진 것과 蠟纈,⁶⁹⁾ 夾纈,⁷⁰⁾ 拓印 등의 染色法을 사용하여 만든 것 등이 보인다. 이들중 대부분의 것들이 發願을 목적으로한 發願幡으로, 주로 눈이 아픈것(眼疾)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 혹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비는 幡 등이며, 그 寄進者는 거의가 婦人들이다.

이 중 開元13年 銘彩色平絹幡(圖 28)은 그 造成記로 인하여 정확한 年代(725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幡이다. 즉 幡身의 가장 윗단에는 ‘開元13年 7月14日 康優婆姨가 幡 10口를 만들었다’라는 墨書의 寄進文(圖 28-1)이 쓰여져 있다.⁷¹⁾ 幡頭는 紅色絹을 사용하여 두겹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어딘가에 걸수 있도록 藍色의 絹으로 끈을 만들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盛唐이후 唐幡의 특징인 幡頭의 山形테두리는 두르고 있지 않다. 幡身은 모두 7단으로, 옅은 黃色과 紅色의 絹을 교대로 배치하고 있으며 각 단을 잇는 부분에는 幡의 형태유지를 위해 가는 나무막대를 넣어 꼬매었다. 각 단의 길이는 더욱 짧아져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幡手는 전형적인 唐幡의 幡手 형태가 아니라, 隋代의 幡과 같이 각 단 경계부분의 좌우에 매어달고 있으나 隋代幡에 비해 길이가 다소 짧은 띠모양을 하고 있어 隋代幡의 전통을 이으면서 唐幡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형태임을 알 수 있다. 幡足은 墨書가 쓰여져 있는 천과 같은 종류의 천을 직사각형으로 잘라 幡身의 끝 부분에 두개를 나란히 이어 붙여 만들고 있다. 함께 출토된 다른 幡들이 비교적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되어진 것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준다.

같은 敦煌의 130窟에서 出土된 것으로 花鳥文紋纈平絹幡(圖 29)이 있다. 白色의 花文이 있는 紗를 이용하여 만든 幡頭는 두겹으로 되어 있으며 幡頭의 山形부분에 彎曲線을 이루는 긴 테두리가 있다. 幡身은 모두 6단으로 綠, 褐, 黃色을 섞어 배치하고 있다. 그 중 제3단은 蠟纈染法을 사용하여 花鳥文을 장식한 黃地絹으로 만들어져 있다. 흐르는 구름과 나르는 새, 그리고 花草 등을 적절하게 배합된 花鳥文은 生動感이 넘친다. (圖 29-1) 그 이외의 나머지 段들은 綠, 褐色 바탕위에 紋纈法⁷²⁾을 사용하여 整齊된 하얀점들을 만들어 장식하고 있다. 幡身 각 段의 연결부분에는 역시 가는 나무막대가 삽입되어 있으며, 그 양쪽의 가장자리에는 짧은 띠모양의 幡手 대신 藍色의 실을 엮어 만든 이삭모양의 장식이 붙어있다. 이 幡의 경우는 幡足이 제비꼬리형이어서 다소

68) 敦煌文物研究所考古組(1972), 「莫高窟發現的唐代絲織物及其他」, p.55.

69) 染色하고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蜜蠟과 樹脂를 섞은 것을 칠하고 그 부분에는 염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원하는 文樣을 내는 技法.

70) 원하는 文樣의 부분을 오려낸 두장의 型紙를 織物의 앞뒤에 대고 染料를 칠하는 技法.

71) ‘開元十三年七月十四日康優婆姨造播(幡)一口爲己身患眼若得 損日還造播(幡)一口保佛 慈因(恩)’.

72) 織物을 실로 감고 染料에 담그는 技法으로, 실에 감긴 부분은 染色되지 않으므로 해서 효과를 얻는다.

古式이기는 하지만, 幡頭에 彎曲線의 테두리가 있다는 점, 각 段의 연결부분에 보이던 幡手が 비 이삭 모양으로 퇴화된 점, 그리고 화려한 장식 등으로 미루어 앞서 본 開元13年銘幡(圖 28) 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이들 出土品중 끝으로 특기되어질 만한 것으로는 綴花絹幡(圖 30)이 있다⁷³⁾ 白色의 幡頭는 두 겹으로 되어있으며, 山形테두리는 없지만 꼭대기를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두변이 역시 彎曲線을 이루고 있다. 幡身과 幡足은 얇은 藍色絹의 동일한 천으로 만들어 졌으며, 幡足은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 幡身과 동일 비율을 이룬다. 幡手는 원래 없었던 것인지 상실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幡의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아마도 원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형태의 이 幡은 幡頭, 幡身, 幡足の 전면에 걸쳐 白色과 赤色 두종류의 별모양 꽃을 幡頭에 1개, 幡身에 2개, 幡身과 幡足の 접선에 1개, 그리고 幡足에 4개, 총 8개를 덧대어 꼬매놓고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이상 敦煌莫高窟 第130窟의 내부와 122,123窟에서 발견된 幡들 중 대표적인 예 몇가지를 뽑아 서술하였다. 이곳에서 出土된 대부분의 幡들은 주로 자신의 祈福을 위한 供養幡이며, 또한 幡의 形制와 文樣 등에서 古式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盛唐期 중에서도 아주 초기의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거의 흡사한 모습의 幡은 敦煌莫高窟 第172窟 東壁北側 文殊菩薩圖(圖 3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C) 中唐(781-848)

敦煌벽화에 나타나는 中唐시기의 幡으로는 第159窟 西壁龕室南側(圖 32)의 예가 있다. 이 幡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塔위, 天蓋, 혹은 스님의 持物로서 달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幢竿위에 걸려있어 특히 주목된다. 현재의 자료로는 그 당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간의 끝에 龍頭를 꿰고 그 龍頭에 幡을 매어달고 있어 여러 경전에서 龍頭 혹은 蓮花에 幡을 매달았다고 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⁷⁴⁾ 매달아 놓은 장소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만 그 형태는 전형적인 唐幡의 모습 그대로이다.

이와 거의 같은 모습의 幡의 실물로는 스타인에 의해 敦煌莫高窟 藏經洞(第17窟)에서 出土된 무수히 많은 幡들이 있다.⁷⁵⁾ 대부분 8~10세기에 걸친 中~晚唐期의 것으로 그 중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어 幡의 양식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몇가지의 예만을 뽑아 서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중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幡으로는 2개의 彩絹幡이 있다. (圖 2, 33) 이들은 모두 8세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敦煌 제17窟에서 발견된것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 할 수 있

73)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1985), 『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6, 印染織繡(上), 北京, 文物出版社와 高漢玉編(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上海, 商務印書館 p.213, 圖 223 참조.

74) 『瑜伽經拾古鈔』, '幢竿置龍頭云金剛幡'.

75) Roderick Whitfield 編輯·解説(1984), 『西域美術』大英博物館 스타인·コレクション 卷1, 2, 3 참조, 東京, 講談社.

다. 이 두점은 원래 一組였던 것이라 생각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幡頭의 山形부분에는 彎曲線의 테두리를 덧붙이고 있으며, 幡身에는 靑·白·赤의 순서로 平絹을 이 어붙여 만들고 있다. 그리고 幡足の 경우는 一枚의 絹에 절취선을 두줄 넣어 마치 3가닥의 幡足を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그 절취선이 풀리지 않게 곱게 시침질하고 있다. 나무위에 兩面으로 唐草文을 彩畫하여 만든 風鎮은 幡足에 비하여 다소 넓은 폭으로 제작되었다. 이같은 형태의 彩絹幡은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幡手が 幡身の 상단을 덮고 있는 面이 前面이어서 그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幡頭に 사용된 織物의 경우도 緯錦⁷⁶⁾이어서 앞뒤가 구별된다. 이와같이 어느쪽에서 보아도 가능하게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공중에 매달았던 것이라 추측되며, 그 중에서도 塔위나 天蓋아래에 사용되었던 莊嚴用幡이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幡身の 형태나 색으로 미루어 당시 가장 흔히 제작되던 五色幡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종류의 전형적인 五色幡은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스타인의 수집품중에서도 드문 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花鳥文幡(圖 34)이 있다. 현재 幡手와 風鎮은 결실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삼각형의 幡頭는 平織의 絹을 사용하여 그 위에 寶相華文을 彩畫하고 있으며, 幡身の 上下에 부착되어진 伸子⁷⁷⁾에는 白色의 生絹絲를 감고 다시 그 위에 色絲를 格子모양으로 감고있어 다른 幡들이 나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 幡은 지금까지 보았던 幡들과 달리 幡身이 一枚로 되어있으며, 그 위에는 銀泥로 花鳥文이 묘사되어 있다. 현재 銀은 변색되어 黑色으로 보이지만,⁷⁸⁾ 긴 꽃가지를 입에 물고 있는 두마리의 새의 모습은 마치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듯 생동감에 넘쳐있다.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幡으로는 페리오 수집품중의 迦陵頻伽幡(圖35)이 있다.⁷⁹⁾ 완전하게 남아있는 이 幡은 형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서술했던 幡과 흡사하나 좀더 장식성이 가미되어 幡足에까지 花文이 있다는 점, 그리고 幡身の 상단에 마치 天蓋와 같은 드림장식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幡에서 가장 特記되어질 만한 것은 幡身に 묘사된 迦陵頻伽로 人面鳥身에 琵琶를 켜고 있는 모습을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길게 하늘로 치솟은 꼬리는 寶相華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幡의 세부모습들은 정확한 寫形法을 주로 구사했던 唐畫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76) 錦은 기법상 經錦과 緯錦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經錦은 經絲를 여러가지 色絲로 하여 문양을 짠 것이고 緯錦은 經絲는 한가지색으로 緯絲는 여러가지 色絲를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낸것이다. 經錦은 漢대이전의 직물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반해 緯錦은 唐代가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拙稿(1990), p.220).

77) 바람이 불 때 幡 전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기지 않게 하는 것이 風鎮이라면 伸子는 幡頭와 幡身사이, 그리고 幡身과 幡足 사이에 주로 끼워져 幡身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는데 이용된다.

78) 松本榮一은 '黑線으로 花喰鳥를 그리고...'라고 하였으나, (松本榮一(1938), 「敦煌出唐代花鳥幡」, 『考古學雜誌』 28-1, p.4) 실물을 직접 접한 Roderick Whitfield는 원래 銀色이었으나 변색되어 黑色으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Roderick Whitfield 編輯·解説(1984), 『西域美術』 卷2, 東京, 講談社 p.328).

79) 松本榮一(1938), 前掲論文, pp.2~3 참조.

이같은 花鳥文幡을 결혼식용으로 본 학자도 있지만⁸⁰⁾ 西方淨土에 사는 靈鳥를 화려한 장식문양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堂內의 裝飾을 목적으로 하였던 듯하다. 幡身에 그려진 花鳥文의 모습, 幡의 才質, 그리고 風鎮에 묘사된 古風의 唐草文樣 등으로 미루어 위의 두 花鳥文幡들은 모두 8세기의 말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약 8세기경까지는 벽화에 나타난 예로보나 실제로 사용되었던 幡의 사용 예로 보나 五色幡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세기말 이후가 되면 벽화에 나타난 예들은 여전히 五色幡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五色幡과 더불어 一枚의 幡身 위에 단독의 상을 묘사한 佛像幡들이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완벽하게 잘 남아있는 菩薩像幡(圖 36)을 들 수 있다. 현재 幡頭의 삼각형부분은 결실된 것을 보수한 것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완벽하게 남아있다. 폭이 좁은 絹위에 보살상을 그리고 있으며, 上邊에는 붉은색의 線을, 양측에는 黑色의 가는 테두리, 下邊에는 菱形이 반복된 文樣帶를 넣고 있어 마치 액자속에 보살상이 있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幡足은 4개이며, 각각의 幡足마다에는 잎사귀와 꽃봉오리를 교대로 배치한 波狀의 花文으로 장식되어 있다. 風鎮 또한 붉은색 바탕위에 唐草文이 묘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 시기의 幡들이 장식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一枚의 幡身을 모두 이용하여 그곳에 單獨像을 그리고 있다는 점과 점차로 장식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식상으로는 이전의 幡과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敦煌出土의 幡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같은 종류의 佛像幡들은 대개 안감없이 단지 一枚의 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 그림을 그렸을 경우 어느쪽에서 보아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얇은 絹일 경우는 한쪽면에만 그려도 뒷면에 비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꺼운 麻나 종이위에 그렸을 경우는 뒷면에까지 비치 보여지지않기 때문에 안과 밖에 마치 비쳐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 (圖 37) 이와같이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음의 예로도 증명된다. 敦煌出土의 綾地彩畫佛坐像幡頭(圖 38)는 정사각형의 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그 양측에 坐佛像을 그린 것으로, 따라서 불상의 양쪽 무릎이 대각선의 양끝을 향하게 된다. 幡身은 얇은데 幡頭만이 두꺼운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같이 幡頭와 幡身을 따로 만들어 붙인 경우도 있지만 一枚의 긴 織物에 幡頭와 幡身을 한꺼번에 그린 경우도 있다. (圖 39)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이와같이 양면으로 만든 것은 3차원의 공간중에 매달아 어느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같이 공중에서 훑날리는 幡의 모습은 塔위, 幢竿위 혹은 天蓋아래 뿐만아니라 인로왕보살의 持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80) Waley는 이 幡의 용도를 결혼식에 사용되었던 것이라 보고 있다(Waley, Arthur(1931), *Catalogue of paintings Recoverd from Tunhuang by Sir Aurel Stein*, London: Roderick Whitfield 編輯·解説(1984), 『西域美術』卷2, p.328에서 재인용).

D) 晚唐(848~907)

끝으로 晚唐期와 그 이후 幡의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晚唐期가 되면 벽화에 나타난 幡(圖 40)이나 인로왕보살의 지물로 나타난 번의 경우 이전의 幡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실물번의 경우는 약간 달라진다. 우선 인로왕보살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지물로 나타난 만당기의 번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토록 하겠다.

引路王菩薩信仰은 唐代 후반부터 宋代 초기까지 특히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이지만 그 명칭이 經典중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⁸¹⁾ 여러 간접자료들로 미루어 단지 '死者의 精靈을 樂土로 引導하는 보살'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敦煌에서 出土된 9세기말경의 引路菩薩圖(圖 41)가 있다. 이 작품은 특히 「引路菩薩」이라는 表題가 있어 더욱 유명한데, 앞 쪽에는 보살이 있고 그 뒤에는 死者의 靈이 따르고 있으며 兩者가 모두 구름을 타고 있다. 菩薩은 右手에 栴檀香爐를, 左手에는 蓮花를 지니고 있으며 蓮花에는 白色의 幡이 매달려 있다. 白色幡(圖 41-1)의 幡身은 4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단에는 花文이 있다. 幡頭의 삼각형 부분에도 똑같은 모양의 花文이 있으며, 각 2개씩의 幡手와 幡足은 바람에 훑날리고 있다. 인로보살이 쥐고 있는 이같은 전형적인 唐幡의 모습에서도 이 그림의 연대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거의 유사한 예로 五代末頃に 제작된 引路菩薩圖(圖 42, 42-1)도 있다. 이 그림의 보살은 寶冠에 化佛이 있어 引路菩薩이 곧 觀音菩薩의 한 종류가 아닌가 추측케 한다.⁸²⁾

이처럼 벽화나 불화중에 나타나는 만당기 번의 모습은 중당시기의 번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으나 실물의 번에 있어서는 幡頭의 모양이 약간 달라진다. 즉 幡頭의 삼각형부분에 단순히 花文만 있는것도 있지만, 앞서 圖38에서 본 바와 같이 坐佛像이 제1석을 차지하고 花文은 삼각형의 밑변 角안쪽으로 밀려나게 된다(圖 43)

지금까지 실물과 벽화에 나타난 예들을 중심으로 唐幡의 양식적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초기에는 幡手도 희미하고 幡頭의 山形 테두리도 없었으며, 幡頭의 삼각형부분에도 아무런 장식도 없던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실한 형태의 幡手, 그리고 幡頭의 삼각형 부분에 花文이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幡의 각단의 길이는 더욱 짧아져 정사각형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段을 전혀 나누지 않고 一枚의 織物을 사용하여 단독의 상을 그려넣은 佛像幡도 盛唐期末頃이 되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 후 中~晚唐期가 되면 장식성이 가미되어 幡頭에 花文이 坐佛像에게 밀리게 된다. 또한 五色幡의 幡身の 화려한 변화에서도 충분히 장식성을 엿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부분적인 변화만을 거듭하며 약 250여년동안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해온 唐幡은 唐이 후에도 계속된다. 즉 五代時期(907~959)의 敦煌 第61窟의 五代山圖에 나타난 幡의 경우(圖 44)는 긴 幢竿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龍頭에서 내려온 긴 끈아래 막대기가 가로질러져 있고 그

81) 松本榮一(1937), 『敦煌畫の研究』,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p.363.

82) 松本榮一은 이 菩薩의 寶冠에 化佛이 있다는 점을 들어 '引路菩薩은 곧 觀音菩薩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영국학계에서도 이 인로보살을 靈魂導引者로서의 관음보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松本榮一(1937), 前掲書, p.364) 그외 引路菩薩信仰에 관해서는 塚本善隆(1931), 「引路菩薩信仰に就いて」(『東方學報』京都一冊) 참조.

맺음말

지금까지 佛敎의 儀式行事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佛具중의 하나인 幡에 관하여 그 起源인 인도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軍人이 전쟁터에서 敵軍을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道場의 魔를 降伏시키기 위하여 印度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幡은 그 후로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敎團의 標識으로, 혹은 佛·菩薩의 威德을 나타내기 위한 莊嚴의 道具로서 사용되었다.

처음 印度에서는 단순히 長方形의 織物을 매어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발전하여 평면도가 이등변삼각형인 형태로 바뀐다. 그 후 中央아시아로 幡이 전해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구불구불한 모양을 띄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형태의 幡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끝이 뾰족하면서 구불구불한 지팡이모양의 幡과 함께 보이기도 한다. 시대가 다소 지나면 앞단계의 것은 사라지고 지팡이모양의 것 만이 단독으로 보이다가 한가닥이었던 끝이 두갈래로 나뉘면서 一名 ‘제비꼬리형 幡’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제비꼬리형 幡은 중앙아시아에서 오랜동안 유행되었을 뿐만아니라 중국에도 유입되어 중국 唐幡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中國에는 佛敎가 전래되기 전에 이미 신분을 상징하는 증명서로서, 경계의 표시로서 또한 군대의 軍旗로서의 幡이 존재하고 있었다. 佛敎가 수용된 이후에도 이와같은 幡은 계속 사용되었으며 그와 함께 佛敎幡 또한 크게 유행하게 된다. 중국의 가장 이른시기 佛敎幡은 北魏時代의 幡으로 幡頭와 幡手가 없는 중앙아시아의 제비꼬리형 幡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후 차츰 중국 기존의 幡과 혼합되어 중국화되어가면서 긴 리본모양의 幡尾와 희미하게나마 幡頭, 幡手が 나타나면서 隋代幡에까지 이르르게 된다.

초기에 中央아시아幡의 形制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中國의 幡은 이와같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중국 특유의 幡을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盛唐期가 되면 幡頭, 幡手를 모두 갖춘 人間의 인체와 흡사한 모습의 幡이 성립된다. 初唐期에는 幡手도 희미하고, 幡頭의 山形 테두리도 없었으며, 幡頭의 삼각형부분에도 아무런 장식이 없었던 것이 盛唐期에는 확실한 형태의 幡手, 그리고 幡頭의 삼각형부분에 花文이 繡놓아지거나 그려지게 된다. 中 晚唐期가 되면 장식성이 가미되어 幡頭에는 花文 대신 坐佛像이 등장하게 되고, 幡身에도 여러 장식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이와같이 ‘唐幡’은 그 기본형은 변하지 않고 단지 부분적인 변화만을 거듭하며 宋代까지 약 300여 년동안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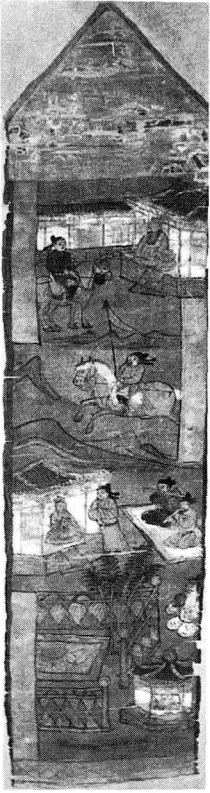
현재 세계적으로 佛敎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幡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이전의 것으로 그 發見例가 없어 그 연구 또한 미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幡을 그 起源에서부터 시작하여 中國 唐幡이 형성되어 전개되기까지의 綜合的 考察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 이후 唐幡의 韓國과 日本에의 전파와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기회를 빌어 게재키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막대기의 가운데에 幡이 달려있다는 다소 특이한 점을 제외하고 幡 자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그 후 敦煌 第97窟 西夏(982~1227)시기의 供養比丘圖(圖 45)를 보면 스님이 들고 있는 깃대위에 연꽃가지가 있고 그곳에 幡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幡의 경우는 幡手와 幡足の 끝에 방울이 달려있어 주목되나 지금까지 발견된 실물에서는 이같이 방울이 달려 있는 예가 펠리오(Pelliot)발견의 2점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幡身の 표현에 있어 두 줄의 대각선을 그어 각 단을 4등분하고 있으며, 4등분된 조각마다에는 각각 다른색의 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두줄의 대각선이 마주치는 교차점 위를 二重의 圓文으로 장식하고 있고, 圓文의 四方에도 또다시 4개의 圓文을 두르고 있어 아주 화려하다. 이와같은 장식적인 幡身の 모습은 이후 宋代에도 계속된다. (圖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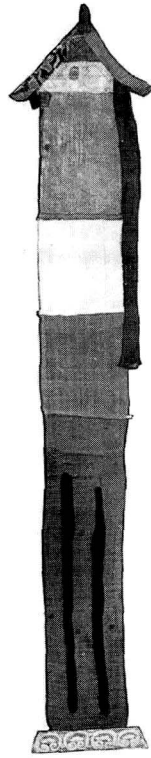
唐幡을 살펴봄에 있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벽화에 나타난 幡과 實物 幡과의 차이이다. 이는 첫째, 벽화에 나타난 幡에는 佛像幡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둘째, 바람에 의해 幡이 말리지 않게 하고, 幡을 감아 보관할때 그 軸으로 사용되었던 風鑣이 벽화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세번째로는 실물로는 제비꼬리형 幡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벽화에 나타난 幡은 마치 제비꼬리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첫번째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唐幡들은 五色幡과 佛像幡이 대부분으로 그 중 五色幡은 5세기말부터 계속 나타나며, 佛像幡의 경우는 8세기말경에 이르러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벽화에 보이는 幡들은 佛像幡은 한점도 보이지않고 모두 五色幡이었다. 그 까닭이 벽화에 佛像幡을 표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묘사가능한 五色幡만을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五色幡은 塔위, 혹은 天蓋아래 주로 매달아 莊嚴하던 莊嚴用으로 주로 쓰였고 佛像幡은 단지 供養用(禮拜用)으로 쓰였기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양자의 가능성이 모두 있지만 그 중 後者의 용도에 따른 차이가 더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幡足の 끝에 매달려 있는 風鑣의 有無여부에 있어서도 벽화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실물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벽화에 風鑣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생각해 보기전에 실물의 幡 자체에 있어서도 8세기를 전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관해 살펴 보겠다. 즉 8세기初 이전에 제작된 幡의 경우는 끝에 風鑣이 달려있지 않고, 8세기末 이후에 제작된 幡은 거의 모든 幡이 양면채색의 風鑣이 달려있다. 이는 아마도 초기에는 風鑣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幡을 다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8세기 이후의 거의 모든 幡(五色幡 포함)에 風鑣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벽화에 표현되어 있는 幡에는 風鑣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는 天衣와 함께 화면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요소가 幡이며, 때문에 그 幡에 나무로 만든 風鑣을 함께 그린다면 動感이 상실될 것으로 벽화에는 풍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세번째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幡足の 끝을 마치 제비꼬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하는 것이 뭉툭한 것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圖 1〉佛傳圖幡, 敦煌出土, 絹本着色, 9세기, 幅 19cm, 길이 77.5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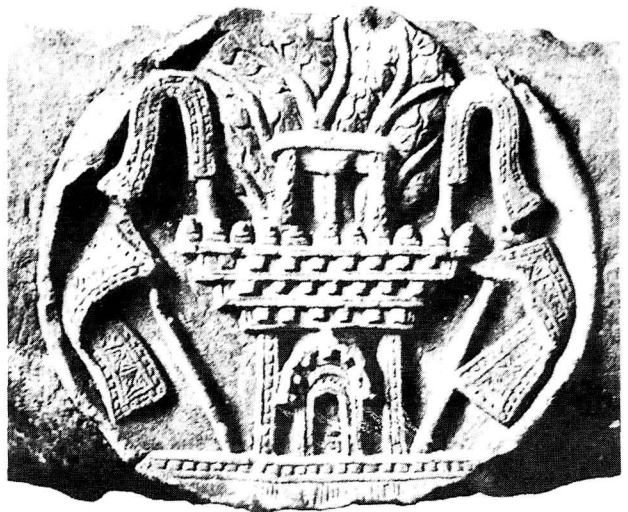
〈圖 2〉五色幡, 敦煌出土, 絹, 8~9세기, 길이 129.5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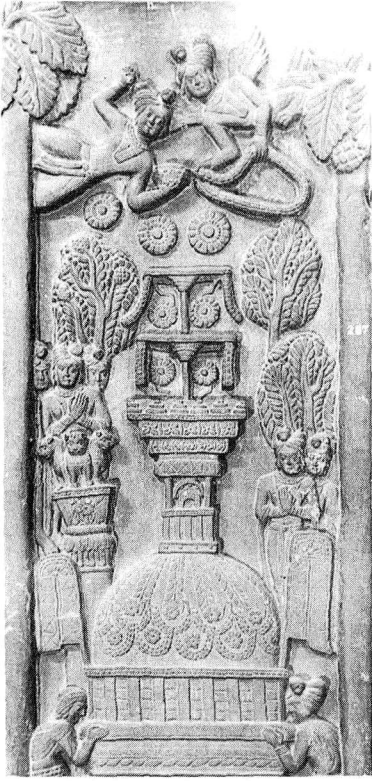
〈圖 3〉幡, 敦煌出土, 絹本着色, 9세기末, 幅 18cm, 길이 172.5cm, 大英博物館



〈圖 4〉長幡, 敦煌出土, 10세기, 絹本, 총길이 538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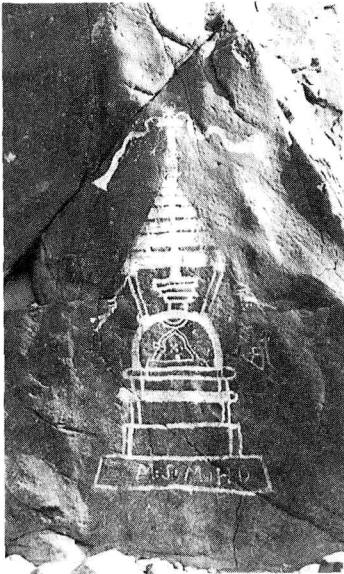
〈圖 5〉마투라(Mathura)出土, 欄循의 橫材, B. C 2세기. 幅 22cm, 보스톤博物館



〈圖 6〉바르후트(Bharhut)浮彫塔婆,
B. C. 1세기初, 砂岩, 캘커타印度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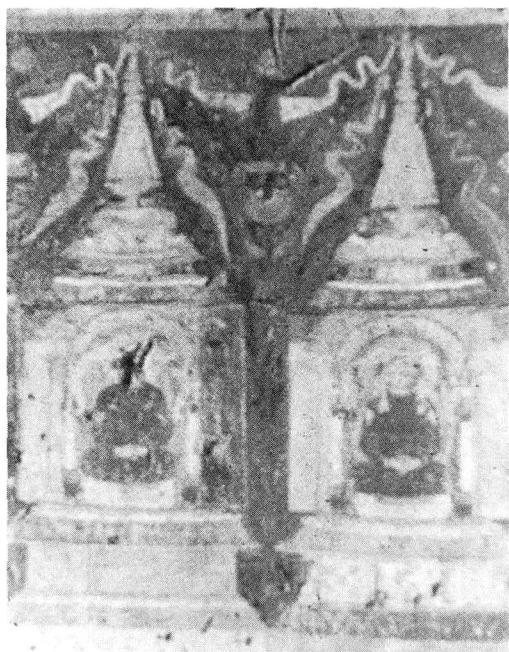
〈圖 7〉사르나트(Sarnath)出土, 佛堂入口의 楣石, 1세기,
砂岩, 높이45cm, 사르나트考古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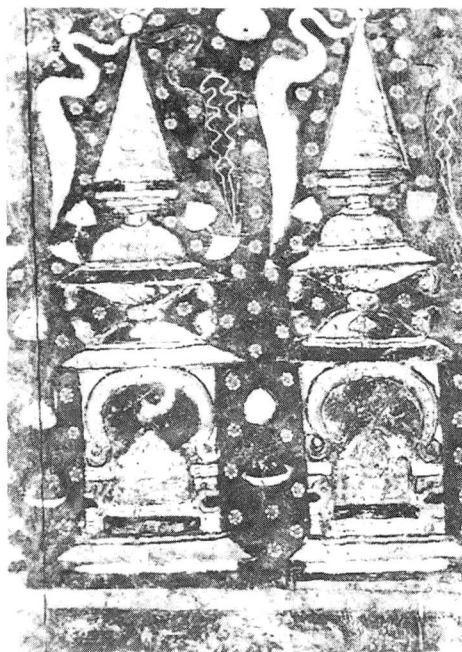
〈圖 8〉샤티알(Shatial)바위조각,
4세기



〈圖 9〉키질(Qyij)岩壁聖所壁畫, 第38窟, 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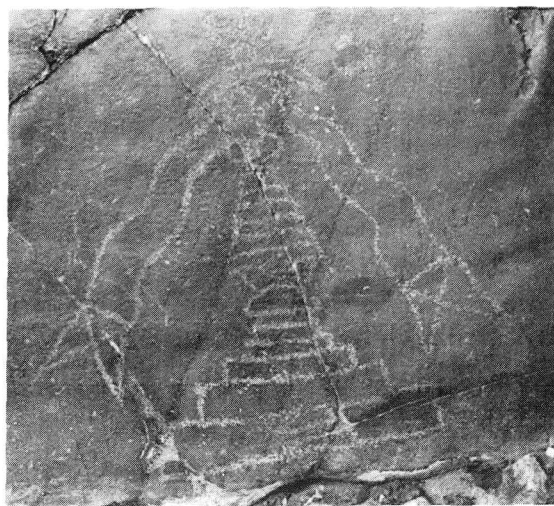
〈圖 10〉 키질〈Qyji〉岩壁聖所壁畫, 第38窟, 後廊, 4세기



〈圖 11〉 키질〈Qyji〉岩壁聖所壁畫, 第7窟, 4~5세기, 베를린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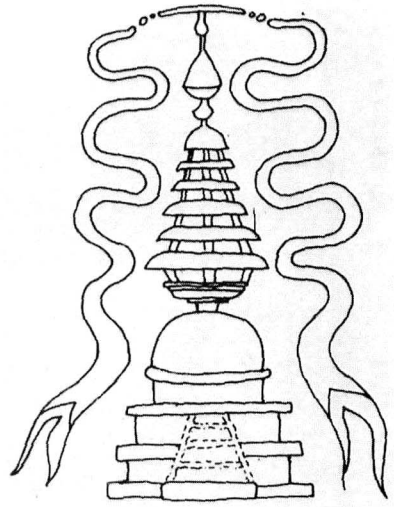
〈圖 12〉 칠라스〈Chilas〉바위조각, 5~6세기



〈圖 13〉 칠라스〈Chilas〉바위조각, 5~6세기



〈圖 14〉 바미안(Bamiyan) 第222窟, 舍利塔과 佛立像, 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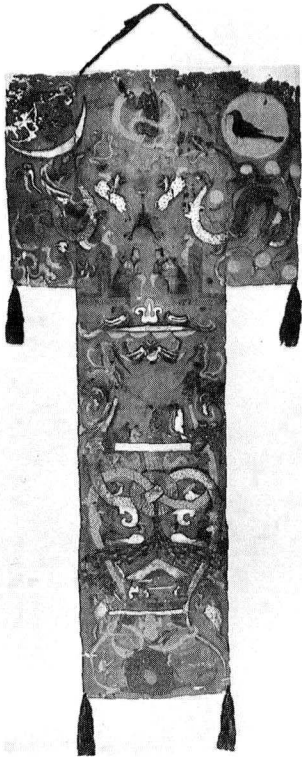
〈圖 14-1〉 圖 14의 모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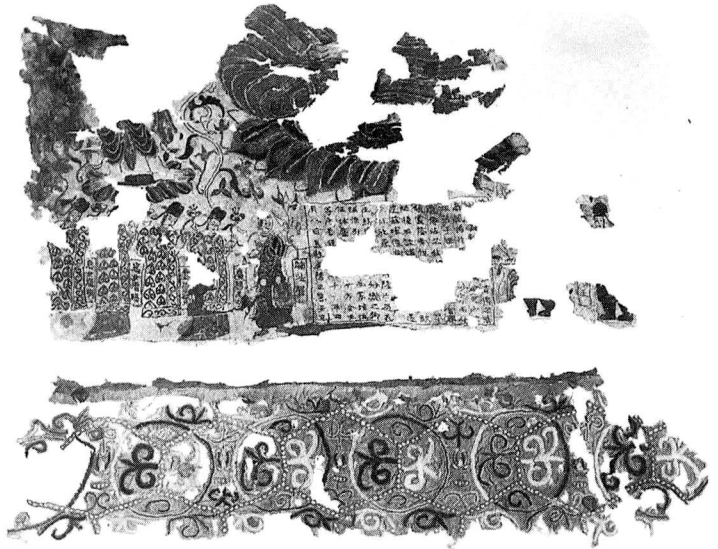
〈圖 15〉 카크락(Kakrak)壁畫, 坐像群의 일부, 5~6세기, 높이 58m, 카불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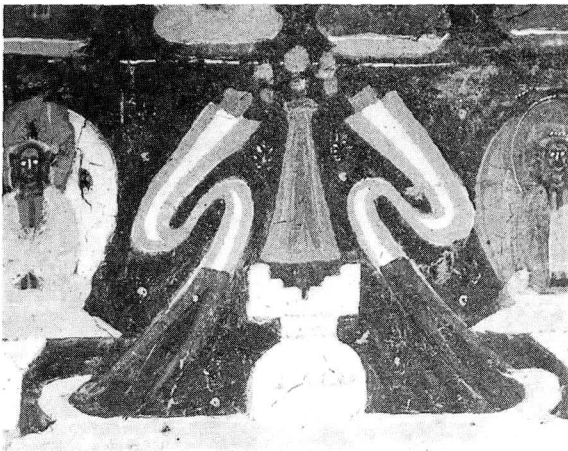
〈圖 16〉 발라와스트(Barawaste)壁畫, 8세기, 뉴델리國立博物館



〈圖 17〉 幡畫，湖南省 長沙馬王堆一號墓出土，
前漢(B. C 168 추정)，上幅 92cm，
下幅 48cm，길이 205cm，
湖南省博物館



〈圖 19〉 廣陽王造佛像繡幡，敦煌莫高窟 125,126窟出土，北魏時代，
供養人部分〈幅 29.5cm，길이 49.4cm〉，花邊〈幅 13cm，길이 9cm〉，敦煌文物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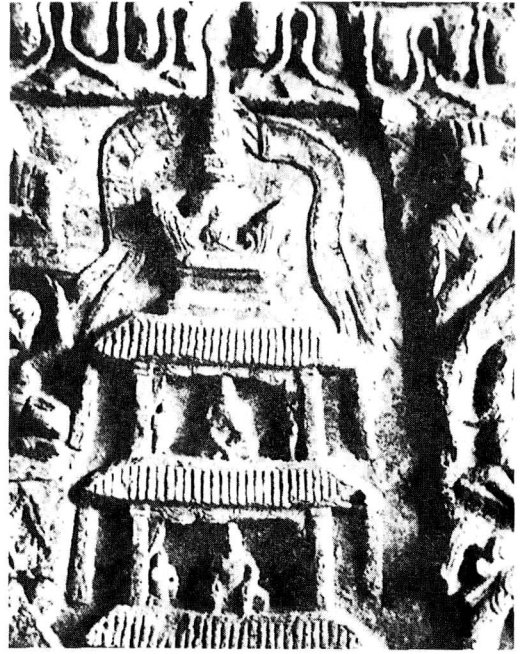
〈圖 20〉 敦煌莫高窟 第257窟，南壁中央，佛三尊圖，北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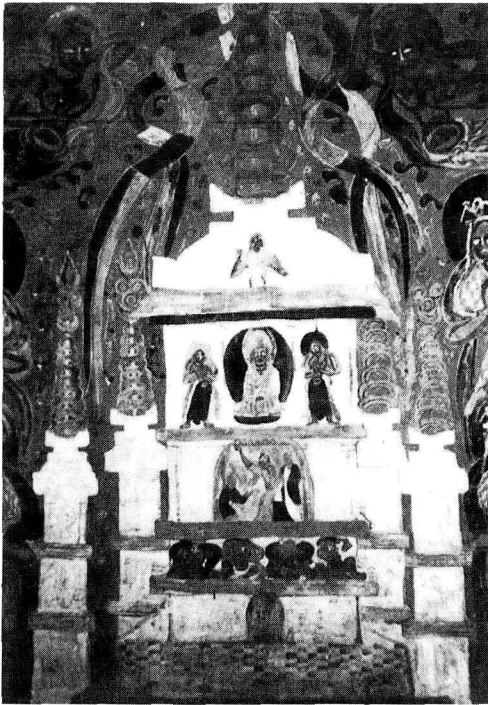
〈圖 18〉 人物御龍帛畫，長沙市 子彈庫一號墓出土，
戰國時代，幅 28cm，길이 37.5cm，湖南省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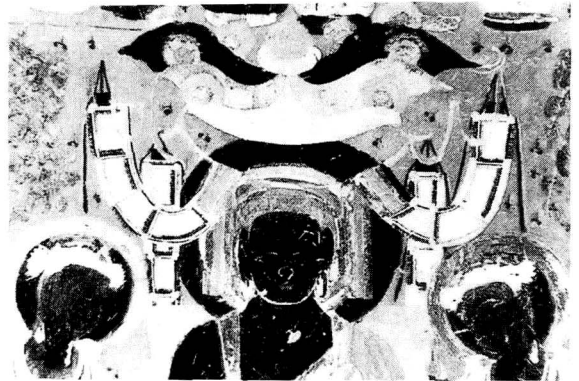
〈圖 21〉雲岡石窟, 第11洞, 南壁上層東部 浮彫三層塔,
5세기末



〈圖 22〉雲岡石窟, 第2洞, 東壁中層 浮彫佛塔,
5세기末



〈圖 23〉敦煌莫高窟 第428窟, 西壁中央南側,
金剛寶座塔, 北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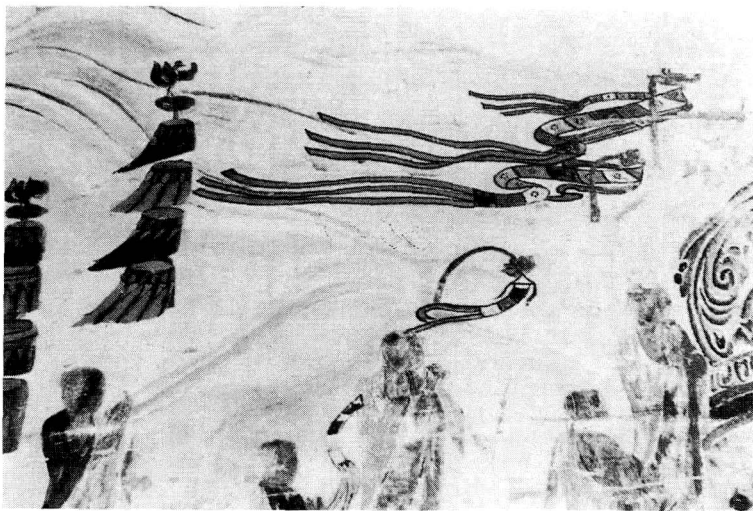
〈圖 24〉敦煌莫高窟 第305窟, 西壁北側, 佛說法圖, 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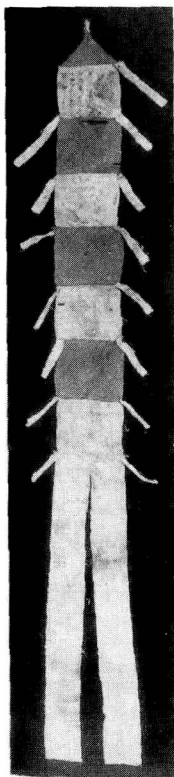
〈圖 25〉敦煌莫高窟 第302窟，前室部南壁，佛說法圖，隋



〈圖 26〉敦煌莫高窟 第323窟，南壁西側上部，阿育王像傳說圖，初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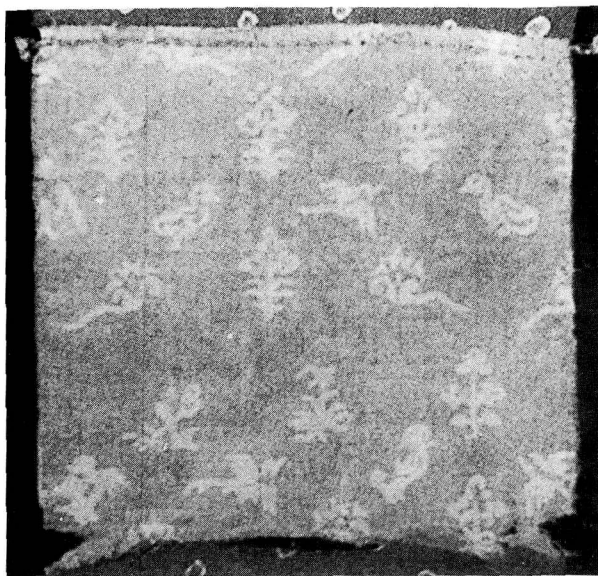
〈圖 27〉敦煌莫高窟 第332窟，南壁上，涅槃變相圖，初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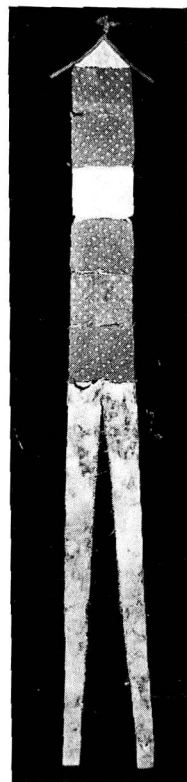
〈圖 28〉 開元13年銘彩色平絹幡, 莫高窟 第130窟出土,
길이 162cm, 幅 15cm, 敦煌文物研究所.



〈圖 28-1〉 圖28의 세부



〈圖 29-1〉 圖29의 세부



〈圖 29〉 花鳥文絞縵平絹幡, 莫高窟 第130窟出土,
길이 164cm, 幅 13.5cm, 敦煌文物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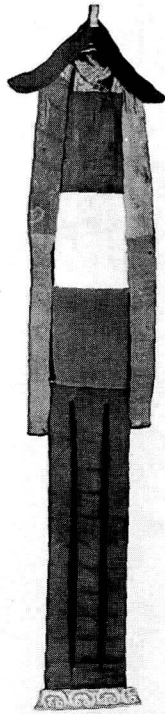
〈圖 30〉綴花絹幡，
莫高窟 第130窟出
土，길이 78cm，幅
9.5cm，敦煌文物
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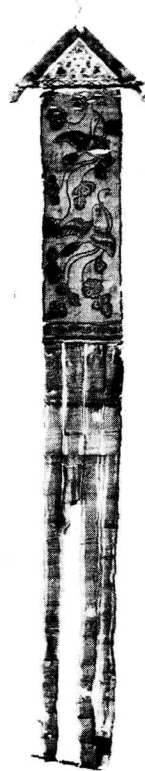
〈圖 31〉敦煌莫高窟 第172窟，東壁北側，文殊菩薩圖，盛唐



〈圖 32〉敦煌莫高窟 第159窟，
西壁龕內南側，中唐



〈圖 33〉彩絹幡，敦煌出土，唐
(8~9세기). 길이 131.1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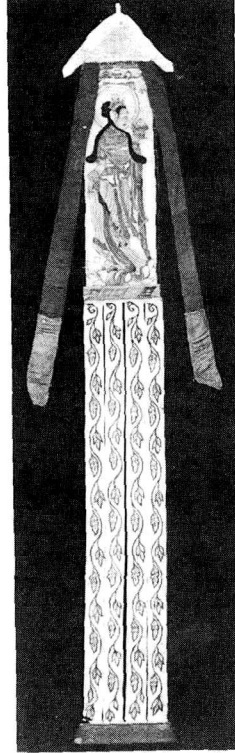


〈圖 34〉花鳥文幡，〈圖 34-1〉圖34의 세부
敦煌出土，絹本褐色地線描，
唐(8세기末)，길이 131.0cm，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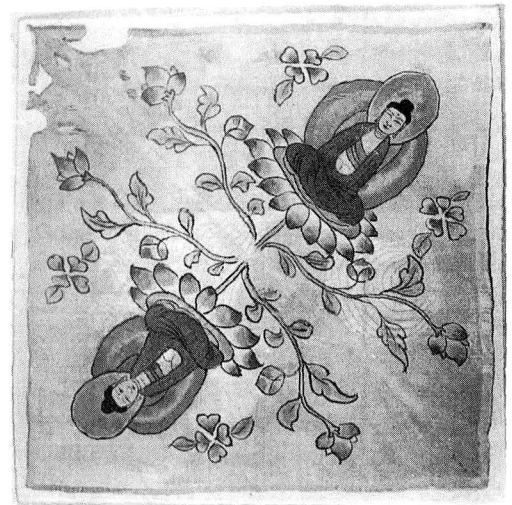
〈圖 35〉花鳥文幡, 敦煌出土, 絹本, 唐(8세기末), 길이 194cm, 폭 42cm, 파리기메박물관



〈圖 36〉菩薩像幡, 敦煌出土, 〈圖 36-1〉圖 36의 세부. 絹本着色, 9세기末, 길이 172.5cm, 폭 18.0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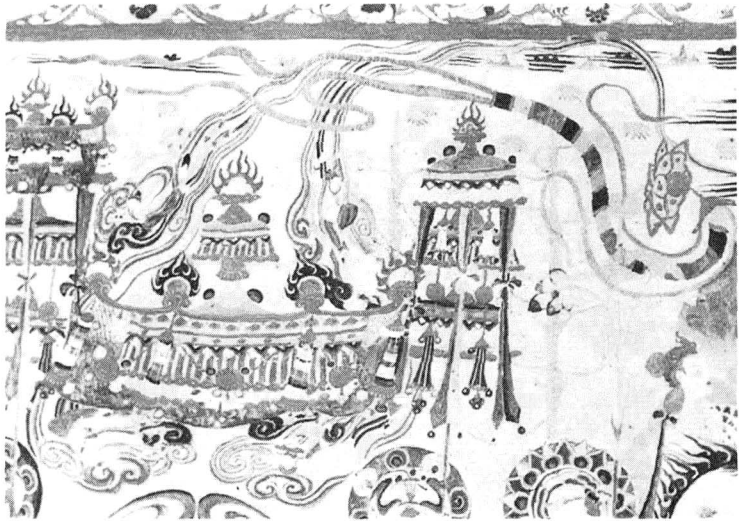
〈圖 37〉二觀世音菩薩像, 敦煌出土, 絹本着色, 唐代, 길이 147.3cm, 폭 105.3cm, 大英博物館.



〈圖 38〉綾地彩畫佛坐像幡頭, 敦煌出土, 綾地着色, 五代(10세기), 52.5~51.7cm, 大英博物館.



〈圖 39〉觀世音菩薩像幡, 敦煌出土, 麻布着色, 五代(10세기初~中), 길이 68.5cm, 폭 15.0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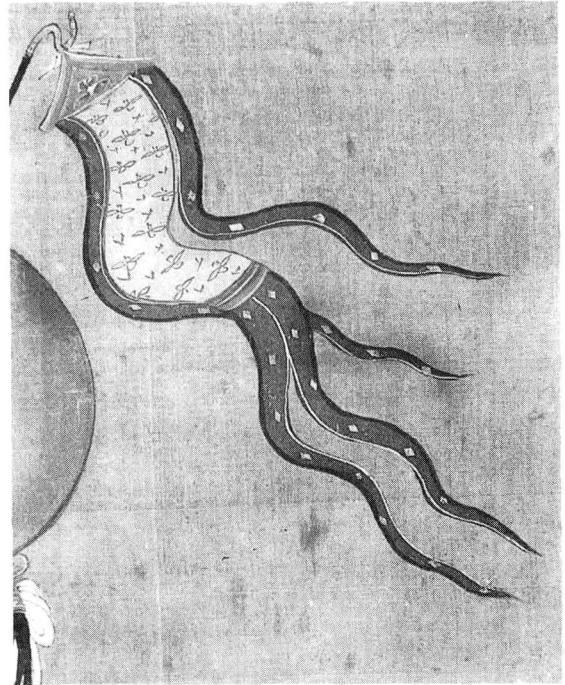
〈圖 40〉敦煌莫高窟 第9窟, 文殊菩薩圖, 晚唐



〈圖 41-1〉圖 41의 세부.



〈圖 41〉引路菩薩圖, 敦煌出土, 絹本着色, 唐(9세기末), 길이 80.5cm, 폭 53.8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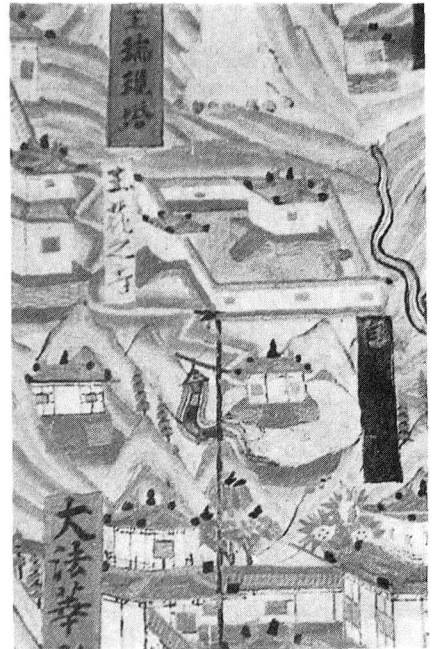


〈圖 42-1〉圖 42의 세부.

〈圖 42〉引路菩薩圖, 敦煌出土, 絹本着色, 五代(10세기初), 길이 84.8cm, 폭 54.7cm, 大英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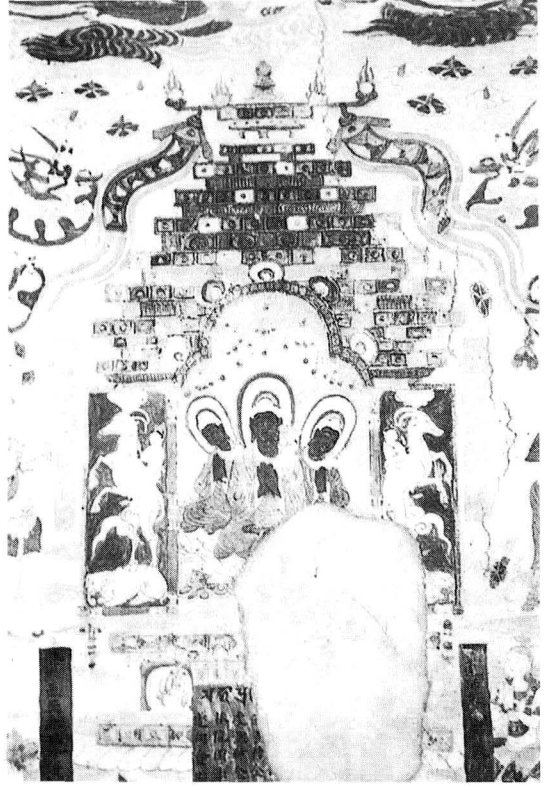
〈圖 43〉觀世音菩薩像幡, 敦煌出土, 紙本着色, 唐末~五代初(9세기末~10세기初), 大英博物館.



〈圖 44〉敦煌莫高窟 第61窟, 五代山圖, 五代(907~959).



〈圖 45〉敦煌莫高窟 第97窟, 供養比丘圖,
西夏(982~1227)



〈圖 46〉敦煌莫高窟 第76窟, 東壁北側, 八塔變部分,
宋代.

[ABSTRACT]

A Study on the Stylistic Changes in Ancient Chinese Buddhist Banner

Yim Yǒng-ae

This is Part I of the Two-Part study on the evolution of buddhist banners in India, Central Asia, China, Korea and Japan; Part I covers India, Central Asia and China while Part II deals with Korea and Japan. Part II will appear in No. 190 of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In ancient India a flag(旗) was used to symbolize victory in a battlefield. This symbolic function of the flag was transmitted in the Buddhist banner(*pataka*, 幡) which was then used to expel demons from the Bodhimandala(道場). Later, the banner was widely used to mark the location of the temple. Banners are also used to glorify and adorn the Buddha or bodhisattva images in the temple halls.

In Chapter I, a definition of the Buddhist banner was given as explained in various Buddhist sutras. *tang* (*dhvaja*, 幢) or *tangfan*(幢幡) seems to designate the flag or banner hung between the two stone pillars(幢竿支柱) standing usually at the entrance of a temple, *fan* (幡) seems to be an all inclusive generic term to designate all kinds of banner or flag used in Buddhist temple for decorative or ritualistic purposes.

In Chapter II, the origin of the Buddhist banner and evolution of its format in India and Central Asia have been examined through representations of banners in wall paintings and relief decorations.

At first, it was common in India to hang a long rectangular piece of textile from the top of a stupa. It was gradually changed to an isosceles triangle form. About the fourth-century AD, a swallow-tailed banner appeared in Central Asia.

Chapter III deals with the formation of Chinese Buddhist banner format from the 7th to the 9th century. It seems that the swallow-tailed format of Central Asian banner was imported to China during the Northern Wei(北魏) period and has been combined with the existing format of the Chinese secular banner to form a distinctive Buddhist banner of the T'ang Dynasty called *t'ang-fan* (唐幡). The T'ang banner is characterized with its complicated format complete with 'head(幡頭)' 'arms(幡手)' 'body(幡身)' and 'legs(幡足)' With a minor change, this format lasted for nearly 300 years until the Sung Dynasty.